— 1 —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19 1981년9월15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September 15,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SEP 21 1981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소련 하키 세계정상 입증

8:1 캐나다 눌러 "캐너더컵"차지

13일밤은 세계하키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던 캐나디안의 긍지가 송두리째 무너진 밤이었다. 2천6백만 온 캐나디안이 주시하고 트루도 수상, 조·클락 야당당수등 2만여 관객들이 몬트리얼·쉬룸에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캐나다대 소련의 「캐나다컵」쟁탈 세계하키 결승에서 소련은 캐나다를 8:1로 대파, 소련하키의 세계적 우위를 드러냄과 동시, 기고만장하던 캐나다를 묵사발시켰다. 이날의 경기로 캐나다는 전처럼 "충분한 연습이 없었다." "베스트선수들이 뛰지 못했다." 등의 종전 핑계를 댈 수 없게됐다. 소련팀은 이날 감추어진 비밀병기 빅터·살리모브의 3골과 세기·카프스틴의 활약으로 캐나다의 수비진을 들부수고 8점의 포문을 열었다.

골리 트레착에 MVP

대회 시작전 연습경기에서 3:2,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7:3으로 소련을 눌러 우쭐대던 캐나다는 1피리어드 초반 슛팅에서 12:4로 압도하면서 화려한 공격을 펼쳤으나 그것이 전부였다.

소련팀은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지 않던 밀집방어를 펼쳐 캐나다지역에서 부터 타이트수비로 막은 다음, 골문지역에서 헛점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을 탄 골리 브라디스라브·트레착은 1피리어드에서 캐나다의 공격을 선방으로 막아내고 2, 3피리어드에서는 당황한 캐나다의 공격을 쉽게 막아냈다.

2피리어드 초반 래리오노브의 첫골로 실점을 한 캐나다는 바로 공격을 펼쳐 뉴욕·아일랜더 크락·킬리의 강슛으로 1:1로따라잡았다.

그러나 이날 최고수훈선수 살리모브는 느슨해진 캐나다 수비진을 헤집고 2골을 연속 성공시켰다.

3:1로 리드당한채 3피리어드를 맞이한 캐나다는 지난번 예선에서 5골을 성공시킨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 5점을 더 잃은채 8:1로 깨져, 76년에 차지했던 캐나다컵을 물려줘야 했다.

경기후 소련팀 빅터·틱호노브 감독은 "이렇게 많은 스코아차로 이기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면서 "만약 캐나다와 다시 경기를 하면 이길 보장은없다"고 겸손해했다.

캐나다의 명수비 래리·로빈슨은 "그들의 밀집방어에 우리가 걸렸다. 수비에서도 공격과 수비진 사이가 너무 벌어져 소련이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었다"고 패배를 자인했다.

소코티·보어맨 캐나다 감독은 "살미보브의 2번째 골이 우리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지난 79년에 「찰렌지컵」을 소련에 놓친 이래 이번에 또 소련에 「캐나다컵」을 빼앗김으로써 캐나다의 프로하키의 긍지가 다시 한번 무너졌다.

오는 84년에 또 「캐나다컵」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그 전망은 확실치 않다.

한편 경기후 「캐나다컵」을 가져가려던 소련팀은 대회조직위원장 알렌·이글슨의 제지를 받았다.

「캐나다컵」 자체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소관이라는 규정을 몰랐던 소련팀은 경관들의 제지를 받고 컵을 두고 호텔로 돌아가야 했다.

한편 지난 11일의 준결승에서 캐나다와 소련은 미국과 체코를 각각 4:1로 물리치고 이날 결승을 올랐다.

◇준결승
캐나다4:1미 국
소 련4:1체 코
◇결 승
소 련:8:1캐나다

◇우승후 환호하는 소련팀 주장 비실리브와 골리 트레착, 트레착은 이대회에서 최우수선수로(MVP)로 선정됐다.

3개은행 우대금리하락

21.75% 인플레이션도

(오타와)캐나다 중앙은행(The Bank of Canada)의 대출금리가 20.69%에서 20.18%로 내리자 3개 주요은행 우대금리도 일제히 내렸다.

14일부터 시행된 몬트리얼은행, 로얄은행, 토론토·도미니언은행의 가장 신용도가 높은 사업가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는 21.75센트까지 내려간다.

몰게지 이자율도 내려가 로얄은행의 3년 재계약 이자율은 21.75%로 내려간다.

이번 중앙은행 이자율하락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금융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작용된것 같다고 전했다.

통화공급면에서 중앙은행의 정책은 증가율을 4~8%로 잡았으나 8월 긴축정책으로 수준 이하로 떨어진것도 그 이유중의하나이다.

금리하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미달러당 80센트까지 떨어졌던 캐나다 달러가 최근들어 83센트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자율하락은 바로 북미외환시장에 반영돼 캐나다달러는 83.04센트에서 10일 82.78센트로 떨어졌다. 달러가치 하락은 투자가들의 유동자산의 캐나다반입을 망설이게 하고 있고, 이것은 교대로 국내화폐유통을 둔화시키고 있다.

한편 우려되던 인플레이션율은 어느정도 둔화되고 있다. 10일 농산부발표에 의하면 8월중 [illegible] 소매물가지수 인상폭은 10.9%로 7월(13%)에 비해 2.1%나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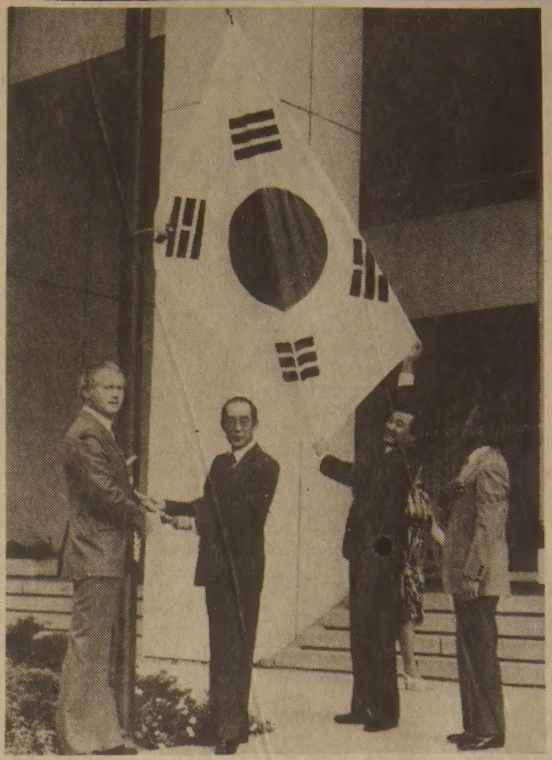
래리 홈스·제리 쿼니 내년 3月에 對戰

史上최대의 黑白對決

〈클리블랜드 오하이오-UPI〉 WBC헤비급챔피언 래리·홈스는 내년 3월 동급 1위에 기록된 제리쿼니와 대전한다.

프로모터 돈·킹씨에 의하면 이 경기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며 지난 5월 켄노턴을 KO시킨 쿼니와 홈스와의 대전은 헤비급경기중 가장 큰 흑백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백인선수인 제리쿼니는 22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건물주와의 수년에 걸친 교섭끝에 이루어진 토론토 총영사관 앞의 태극기 게양. 건물주 가빈·클락(왼쪽)과 함께 국기게양을 하는 이상훈 총영사(가운데), 박영철 부총영사가 태극기를 펴들고 있고 국기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조영사[촬영 : 김종환 기자]

총영사관

국기게양식 가져

오랫동안 염원하던 토론토 총영사관의 태극기 게양이 이루어졌다.

14일 오전10시 토론토총영사관(439 University Ave.)은 이상훈 총영사, 박영철 부총영사, 건물주 가빈·클락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 게양식을 가졌다.

피닉스 빌딩 7층을 세내어 쓰고있는 총영사관은 이제까지 건물앞에 국기게양을 위해 수년간 건물주와 교섭을 하였다.

지금까지 관례로는 세들어 있는 해외공관은 임의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게되었다.

이번 총영사관의 국기게양은 이례적인조처로 이상훈 총영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게양된 태극기는 가로 180센티 세로 120센티의 대형국기로서 캐나다국기, 온타리오 주기와 나란히 피닉스 빌딩 앞에서 그 위용을 떨칠 것이다.

친일 미의원들 일본에 경고

극동방위 일익을 담당하라

(워싱턴=연합) 일본이 극동방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종전같이 미국의 극동방위에 편승 의존한다면 미국내의 보호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이라고 10일〈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러한 경고가 지금까지 일본에 우호적이고 일본에 유리한 자유경쟁 무역제도를 옹호한 미국회 의원들에게서 나왔다고 동지는 말했다.

지난 10일동안 의회에서 이들 친일의원들의 일본에 대한 경고발언은 일본의 경제적 성장을 수출의 과도집중과 수입억제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부채질했다.

동지는 또 일본이 많은 공업제품 수입장벽들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제조업자들이 아직 일본시장을 개척하는데 열의가 없다고 불평하지만 일본이 농산물 수입을 비롯 모든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제거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방세계는 일본의 경제기적이 미국의 우방국 보호정책(미국의 극동방위)에 힘입은바 크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동지는 현재 미국과 함께 경제적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에 대해 미국은 극동방위와 안정에 있어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아울러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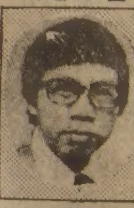
또 소련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해 레이건행정부는 일본의 자체방위와 주일미군사력의 유지를 위해 더욱 많은 경비를 일본이 부담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동지는 미국무성아시아의 정치적 균형을 이루는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협력해야할 사항들을 이미 작성해놨다고 말했다.

점차적으로 군사활동에 가담해야할 일본은 오히려 군사비 증강이 국내 농업압력단체나 서방국가의 일본시장 진출에 대한 대응책보다 일본 정치인들에게는 쉬운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이 경제적 성공으로 치러야할 댓가중의 하나가 바로 군비재확장이라고 말하는 한 일본유수의 경제학자는 "일본의 실질적 군비예산은 서독을 능가할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B)497-3800
(R)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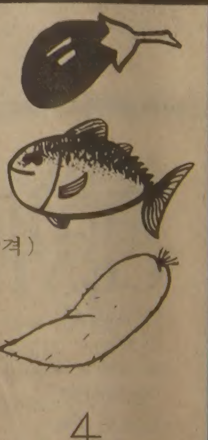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서울식품 "BIG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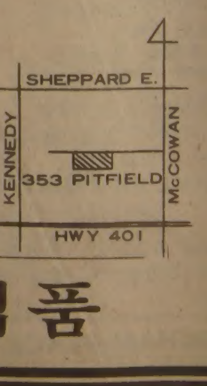
한국·미국으로부터 대량직수입 SPECIAL!! 세일기간 9월8일(수)부터…

		REG.	SPECIAL
●불고기등심	Lb.	2.59	2.20(10파운드제한)
●갈 비	Lb.	1.69	1.29(박스제한없음)
●소꼬리	Lb.	1.35	1.09
●참기름깡통(일본제품)		10.90	9.50
●한국농장용 배 추 / 무 / 풋고추	농장가격으로 그냥 서비스		
●명간장	1 gal		6.90
●양잠피	1 kg	2.25	1.80
●삼양라면	1 박스(50개)당15봉지 Free		
●삼양냉면	1 박스 5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청수냉면	1 박스 2인용	24.00	19.00(1 박스제한)

		REG.	SPECIAL
●오징어젓	Lb.		80¢(특별가격)
●한국고추가루	Lb.	3.50	2.90
●어리굴젓	Lb.	4.90	2.90
●각종선물용상품(gift) —20% 디스카운트			
● 쌀 : 미국에서 도착즉시 추가 세일할 것임			
●삿보로라면		13.90	11.50
●산요보온밥통		128.00(특별가격)	



주소 : 353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서울식품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SSW

외국유학생들 취업 검토
공학·컴퓨터·사이언스등 인력부족

온타리오주 대학들은 연중무휴로 운영할 것과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제안이 9일 온타리오 대학교육자문위원회에 의해 발표됐다.

엔지니어, 컴퓨터 종사자및 경영학전공자들의 시급한 인력수급을 연구해온 동 위원회는 인력부족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금년초 주정부의 지원아래 작성된 33페이지에 달하는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현행 정책안에서 할 수 있는 2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 외국인 유학생들의 입학을 억제, 더많은 캐나디언 학생들이 인기학과를 택할 수 있게 하든가;

■ MIT공대같은 고도의 실력을 갖춘 대학을 설립한다.

그러나 두가지 선택안 모두 실현성이 적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갖춘 대학의 운영은 가장 돈이 많이드는 선택안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정부에서 검토중이다.

지난5년동안 25%나 증원 12,500명의 엔지니어를 배출한 온타리오주 대학들은 지금 더 이상의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고 밝힌 동위원회는 향후 수삼년간 엔지니어의 부족사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주정부는 학교시설의 확대와 더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위해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한다고 말한 동위원회는 공학부를 증설하는 대학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등 특별한 재정정책을 통해 수용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동보고서는 한 둘의 대학공학부는 파트타임 학생들을 받아들여 이미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지식을 섭취,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을 일년내내 쉬지않고 완전가동시키는데 드는 경비는 교수들의 월급등 인건비가 전부라고 동보고서는 말했다.

한편 컴퓨터 종사자들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은 매년 15%(200명)의 졸업자들을 더 배출시켜야 된다고 동보고서는밝혔다.

동보고서는 또한 컴퓨터등 다른 인력수급 부족현상을 보이는 학과의 학생들을 증원하기위해 충분한 장학금을 주는것과 아울러 수업료 인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계속증가되는 인력수요를 충당하는데 제일 손쉬우면서도 극적인 방법은 외국유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도 계속체류 일을하게 하는 것이라고 동보고서는 거듭 강조했다.

'81년 온타리오주 전대학의 공학부, 컴퓨터 사이언스및 경영학부 졸업자중 외국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0%, 11%, 5% 였다.

외국유학생들에 대한 취타재도도 아울러 검토한 동위원회는 80년대 중반까지 유학생 취타재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승警備員에 被殺돼
오크라호마市 오순철씨 의문의 죽음
警察,"車속서 言爭하다 銃맞았다"발표

〈휴스턴지사〉 오크라호마시티 거주, 오순철(34)씨가 지난 7월29일 병원경비원의 총에 숨진 의문의 변사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교포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오크라호마시티 경찰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오순철씨가 지난 7월29일 상오7시30분께 SE. 164와 PEEBLY RD 노상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중인 오크라호마 칠드런스 메모리얼 병원의 경비원인 LEON BATES가 쏜 총에 맞아 절명하였다고 한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이날 아침 오씨가 손을 흔들어 LEON BATES의 차로 달려와 차 뒷좌석에 뛰어들었으며 뒷자석에는 베이츠씨의 12살된 딸이 타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경비원과 말다툼이 화근이 되어 총격을 가하게 되었고 숨진 오씨의 손에는 손목칼이 들려 있었다고 한다.

검시 결과는 오씨의 왼손바닥과 왼팔에 38구경 권총알이 관통 되었으며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3백75 매그너 권총알이 관통되어 치명사가 되었다고 한다.

허나 경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오씨의 칼은 손톱깎기에 달린 조그만 것이었으며 이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건은 철저한 규명이 되지 못한채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오씨는 78년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와 3년간 거주하다 지난 3월 오크라호마로 이주했으며 유족으로는 노모인 오우석여사(68)와 미망인 오희선(34)씨, 유경(9), 유미(7), 유정(5) 세딸이 있다.

결 혼 축 하

신랑 : 재기군 (이종환씨 장남)
신부 : 원자양 (김인학씨 4녀)
때 : 9월19일(토) 정오
곳 : 벧엘교회 395 Old Yonge St (영×하이웨이401)
주례 : 최상봉 목사
피로연 : 오리엔탈팔레스 (하오2시)

〈제 언〉 새 회장단에 드린다

함 필 용(전 한인회이사)

우리 한인회는 전 회장단의 진퇴문제로 복잡한말썽이 있었으나 8월29일 임시총회에서 단일회장단 후보 박인순씨팀이 회장단으로 인준되어 한인회 살림을 맡게 되었음은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번 선거에는 2,3팀이 나와서 경쟁투표를 하였으면 교민들의관심을 한인회에 집중시키고 한편 선임된 회장단도 중책감으로 도중에 하차한다고 신문광고를 내는등 추태와 교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못할것으로 본다.

3,4팀의 등록금이 들어오면 어려운 한인회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리라는궁상스러운 생각도 하여보았었다.

단일팀으로 회장단이 되었다고 무책임할 것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분열이 있으리라는 뜻도 아니다.

본국의 국회의원선거 에서보면 어떤 구에서 거물급인사가 출마한다는 소문이 나면 대개 입후보자 수가 많지 못하였다.

금번 한인회 회장단선거에서도 누가 나온다하여등록을 포기한 인사가 있었다.

금번 회장후보 등록으로 3,4천달러 생길줄 알았더니 재수가없는 모양이다. 이런나의 궁상스러운 계산에서볼때 금번 인준받은새 회장단은 부담이크고 임무도 많다고 보겠다. 경로잔치다, 어머니날이다하여 장한 어머니를 상주며, 하루종일 즐기는것도 좋은일이다. 이런 행사를하여 교민대중을 웃기며, 즐겁게 하면서 돈벌이는 없는가 생각한다.

물론 한인회는 영리단체가 아니다. 기금은 한푼도 없다. 회비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 회비도 제대로내는 인사가 몇분이나 되는가 말이다.

그런데도 한인회서 무슨 잔치가 있다하면 구름같이 모여든다. 공짜를 대단히 좋아하는 모양이다. 정관개정의 문제는 새 이사회와 회장단이 정관운영의 미비함을 보충할줄로 믿는다.

최근 한인회 정상화회의에서 회장단과 이사회가 서로 제통이 서 있지 않음을 우리는 많이 보았다.

우리민족은 머리가 우수하고 근면하나 의심이 많고 남을 믿어주지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정심이 많고 의리를 지킬줄 안다. 결심을하고, 열심이 나면 자금도 대어준다.

우리3만 교포는 쌍수로 새회장단을 환영하며, 한인회일에 참여할줄로 믿는다.

새로운 회장단에 기대가 크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㊽

팔리·모왓 원작, 원 재 중 옮김

추운겨울에 이옷만 입고있으면 얼굴만 빼놓고는 몸전체를 보호할수있고, 가장자리는 오소리털로 깃을달아 숨결이 털에 달라붙어 얼지않게 되어있다. (오소리털 만이 습기를흡수하지 않아서 얼지않음)

여름비에도 가죽은 젖어들지만 사슴가죽과 살갗사이에 공기로 차단이 되어서 물기는 바로 빠져버려 몸은 하나도 젖지않는다.

그 다음으로는 이옷의 무게인데 백인들은 북극에서 겨울을 보낼때 적어도 25파운드의 옷을 껴입지만이누이트의 이 옷만은 겨우 7파운드밖에 안나간다. 그러므로 이옷을 입고있으면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움직일수가 있다.

옷을 잔뜩 껴어입고 바싹 허리띠를 조여매면 잠수부처럼 몸이 자유스럽지 못하다.

이 사람들의 옷이 가벼운 반면에 몸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느슨하게 지어져서 부자연함을 전혀못느낀다. 또한 이것을 입고 있으면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숨을쉬고, 제한없이 움직일수가 있고 아무것도 입지않은 사람처럼 행동할수가 있다.

영하 50도 속에서도 지붕밑이 아니고 밖에서 자야될 경우가 생기면 파카속으로 팔을집어 넣으면고급 슬리핑백에서 자는것처럼 편하게 잘수있다.

겨울엔 이렇지만 여름철엔 어떠한가?

이미내가 설명한 것처럼 사슴가죽은 우비의 역할을 한다. 여름철엔 밖에 있는 가죽을 떼어내면 한겹만 남게되어 더위를 막을수 있게된다. 그안은 놀랄정도로 서늘하고 환기가잘된다. 뿐만아니라 파리나 모기따위가 전혀 덤비지못하게되어 여러가지 장점중에서도 제일큰 이점을 갖고있다. 머리를 덮는 후드를 올리면 목과귀를 덮어서 곤충들이 절대로 접근할수 없게 되어있다. 물론 이할미우트들은 언제나 귀찮은 파리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히스테리가 되든가 귀찮아하지 않는다. 여인들의옷은 두개의 방울 갖고있는데파카뒤에 마치 곱추가 있는것처럼 만들어져서 아마우트라고 불리는 이큰 공간에는 아직 젖을떼지 못한 갓난 아이들이 살고있다.

한다발의 물기를 잘흡수하는 마른이끼를 넣고 아이를 발가벗겨 앉히면 기분이 매우 좋아서 밖을내다 볼수있고 어려서부터그가 자라서 살아야될 땅의 경치와 상태를 눈에익혀놓게 된다. 어린아이는 옷이 필요없다. 그리고 마른이끼로 말하면 이 땅에서는무진장하게 얻을수 있고, 즉시 새것으로 갈아 넣을수 있다.

어린아이가 다음 태어날 아기때문에 이 아파트를비워줘야 할 때는 겨울철에 우리들 아이들이 입는것과 흡사한 한장으로 된 가죽으로 옷을 해입힌다.

이 옷은 우리 아이들 옷보다 훨씬 가볍고 움직이기 편하며 더위와 추위에 훨씬 효과적인 옷이다. 이 할미우트의 아이에게는 이 첫번째의 집이 매우 훌륭하며 백인들의 아이들이그의 진가를 알기만 한다면 부러워할 것임에 틀림이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사람들의 집이고 이땅이주는선물이지만 주로 툭투가 이들에게 주는 천부적인 선물인 것이다.

IX. 에스키모의 봄

내가 그들의 말에 더 익숙해 질수록 이사람들과의 대화는 그들의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많은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마치 이 할미우트는 나로하여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그들의 생활을 상상이라도 시킬려는 것 같았다.

바렌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들의 생활을 보리고, 조심성있게 설명을해서행복했던 옛날에 그들과함께 내가 살았던 것처럼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얼마안되어 그들이 원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했는지 나의 心眼을 통해서 지난과거의 이사람들의 활기에찬 풍부한 생활을 볼수가 있는것 같았다. 그때 사람들은 산위에 올라가 동서남북을바라보면 사슴인 툭투가 천지를 덮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지를 못했었다. 그리고 천지를 진동하는사슴의 구수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봄이되어 사슴이 숲속에서 나올때 암사슴의 배는 새끼를 배서 뒤뚱거리고 새생명의 환성이 온누리에 울려퍼지곤했다. 그러면 이사람들은 방채된 겨울의 이글루 밖으로 나왔고, 이가 모두빠진 노인들은 툭투를보고 환영하는 미소를 지었다.

(계속)

주간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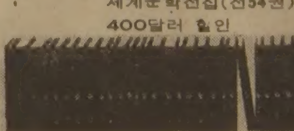
O. 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MRS. PARK
202 SPADINA AVE. ☎ : 363-6077

BRITANNICA

NOW 30 VOLUMES!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 용 목 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安保經協」見解差로 첫날 難航

韓·日閣僚회의 開幕 60億弗借款등 오늘再論

韓半島 安保、공통認識에만 合意

日、經協과 不連繫 從前立場고수

韓日양국은 10일 개막한 제11차 韓日定期閣僚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安保에대한 양국간의 共通認識에는 합의했으나 한국측이 安保經協의 連繫차원에서 제시한 60억달러의 公共借款요청에 대해 日側이 종전의 입장을 固守함으로써 難航을 겪고있다. 安保經協문제는 따라서 이문제의 타결은 회의마지막날인 11일 상오 양국 個別閣僚회담에 이어 하오에 열리는 全體회의가 고비가 될것같다.

盧外務 "國力알맞는 平和分擔 필요"

소노다 "兩國협력、東洋安定에 공헌"

10일 상오 9시 서울新羅호텔의 다이너스티·홀에서 會同한 韓日정기각료회의의 양측대표단은 이번 회의의 주요爭點이 되는 한국측의 經協요청과 額數등에 관해 협의를 벌였으나 東北亞안정을 위한 일본의 防衛分擔의무와 관련한 安保經協案에 대해 『平和국가로서 일본의 國是에 어긋나는 國防費목으로 經濟援助를 하는것은 불가능하다』는 日側의 難色표명으로 이해접근을 보지못했다。

이날 盧信永외무장관과 소노다(園田直)外相을 각각 수석대표로하는 양국대표단은 상오의 全體會議와 하오 각부처별 個別閣僚회담을 통해 양국의 기본입장과 배경을 설명했다。

盧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의 基調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緊張은 향후 4~5년에걸쳐 緩和보다는 더욱 高潮될 공산이 있음을 보이고있다』고 지적, 『현재 GNP의 6%를 방위비로 부담하고있는 한국정부의 방위노력은 한국자체의生存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東北亞안정에 크게 기여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이어 『韓·美·日3국이 韓半島를 중심한 東北亞안정에대한 공통인식에 입각해서 각자의 國力에 알맞는방법으로 平和維持에 기여해나갈필요가있으며 韓日양국간의 협력증진도 양국의平和와 발전이라는 한계를넘어 세계의평화·안정에 공헌한다는 大局的차원에서 중시돼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盧장관은 특히 지난外相회담에서『서로 상대방의번영속에서 自國의 번영이 가능하다』고밝힌 소노다外相의발언내용을 상기시키면서『이번회의를통해 새로운차원에서 韓日양국협력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崔昌洛 경제기획원차관은 盧장관의 基調연설에대한 보충설명을 통해『한국정부는 과중한 국방비 부담과 잇단 石油波動,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財源難에 봉착한 가운데 사회개발擴充을위한 財政需要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고『資本協力분야에서 長期低利차관의 도입에 역점을 두고있다』고 일본의 對韓經協의 필요성을역설했다。

이에대해 소노다外相은 기조연설에서 『일본은 平和국가로서 經協을통해 세계경제발전과 안정에 기여해왔다』면서 『이런 기본전제하에서 상호의존과 인도적고려를 기초로 被援助國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고 民生安定·복지향상에 공헌한는것을 목적으로 삼고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平和국가로서 일본은 國是에따라 國防費를 대신하는 성격을가진 援助를 하기란 不可能하다』고 말하고『일본이 어려운 財政사정에도 불구, ODA(公共開發지원) 資金확충에 노력하고있지만 그量的확대에는 한도가 있는데다 소득수준이 낮은 開途國을 중심으로 공여하고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에 대한 ODA資金지원에는 제약이 따름을 강력히 示唆했다。

소노다外相은 특히 70년대후반의 양국經協이 民間베이스를 주체로 지속돼 왔음을 상기시키고 『80년대에 와서도 韓日經協관계는 당연히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유지·발전돼야 한것』이라고 公共차관이 아닌 民間베이스에의한 經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베이스에의한 양국간 經協역시 『지금까지 貴國의 民生안정을 목적으로한 사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협력해왔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유지해가고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소노다外相은 그러나『이번 각료회의결과 韓日양국간의 특별한 관계와 한국이 당면한 문제등을 고려, 양국의 평화와 번영이 곧 東洋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한다는 새로운 協力관계로 발전되기를염원한다』고 말해 이번회의결과에 따라 양국간經協이 好轉될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시사했다。

소노다外相은 한반도정세와 관련, 한반도는 엄한 긴장상태에 놓여있고 ▲駐韓美軍의 주둔이 한반도긴장완화에 충분히 기여하고있으며▲일본은 한반도安保와 평화에 악영향을 끼칠 일체의 행위를 하지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특히 南北韓관계에 언급, 『일본의 對韓반도관계는 韓日友好관계를 기본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히고 한국정부의 1·12및 6·5提議에 대한 지지표명과 함께 이에대한 北韓반응을『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緊張의 現場 板門店…日 閣僚의 무거운 表情

綜合安保論을 내세우면서도 애써 安保經協을 피하려는 소노다外相(右에서 3번째)등 日本閣僚들이 盧信永외무장관의 안내로 韓半島긴장의 現場을 踏査했다。南北을 가로지르는 板門店 軍事停戰委회의장에선 日側閣僚들의 표정은 무겁기만하다。

共同聲明 文案작업

實務陣 「積極지원」표현싸고 深夜절충

韓·日양국의 실무자들은 閣僚會議개막과 함께 10일밤 늦게까지 共同聲明文案에 대한 본격적인절충작업을 벌였으나 安保經協문제에관한 양측의 엇갈린주장으로 異見을 좁히지못했다。

한국측은 對韓安保經協문제와 관련, 「積極지원」이라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明示할것을 강력히 주장한반면 일본측은 계속 民生안정차원에서의 경제협력을 고집했다。

이에앞서 孔魯明 외무부정무차관보와 日외무성의 기우찌(木內昭胤) 아시아국장은 10일하오 비밀리에 만나 공동성명의 方向문제를 협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얻지못했다。

이에따라 공동성명의 최종적인 文案협상과 채택여부는 11일 상오에열리는 盧信永외무장관과 소노다(園田直)일본외상간의 마지막 개별회담에서 최종판가름날것으로 보인다。

鄧小平、日自民總務會長에

"韓半島의 平和·安定 日·中共 不可缺요소"

【東京支社】중공을 방문중인 니까이도·스스무(二階堂進) 일본자민당 총무회장과 중공의 1인자 鄧小平부주석은 9일 회담을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과 중공으로서는『불가결의요소』임에 의견의일치를 보았다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이날 北京발외신면 톱으로 보도했다。

일본자민당의 실력자로 지난7일 중공을 방문, 중공지도자들과회담을가진 니까이도 총무회장은北京인민대회당에서 鄧小平과 1시간30분간에걸쳐 일·중공관계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양국의 실력자들이 극동정세에 있어서 한반도가 일본과 중공의 안정에 불가결의 요소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니까이도―鄧간의 회담에서 鄧은 또 ▲소련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對美관계를 중시하나 미국의 對대만 이스라엘관계는 문제가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같은날짜 요미우리신문은 중공의 廣東日報가 지난5일자 신문에서 처음으로 중공―한국간의 3각무역을 공식보도했다고 전했다。

廣東日報는 지난8월중순 廣東곡물유지식량수출입公司가 홍콩을 통해 대두 20톤을 한국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는데 중공이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공식으로 확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額數削減 흥정안하겠다"

韓日 部處別로 會談

經協프로젝트는 提示용의

個別用途간여·制約등은 排擊

韓日각료회의에 참석한 韓日양측각료들은 10일상오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낮부터 부처별로 오찬을겸한 개별각료회담을 갖고 전체회의에서 거론된 양측의 기본입장을토대로 실무적인협의를가졌다。

이날하오 롯데·호텔36층 피코크·룸에서 있은 申秉鉉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과고오모또·도시오(河本敏夫)일본경제기획청장관의 오찬을겸한 개별접촉에서는 한국측이 對日경제협력방향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으며 이어 주로 양국경제상황에의한 의견이 교환됐다。

申부총리는 이자리에서 한국의 對日經協과제가 자본협력、외국인투자、기술협력、제3국공동진출등 4개부문이라고밝히고 특히 자본협력부문에서 60억달러의 정부차관과 유리한조건의민도 40억달러 輸銀차관제의는 일본측의 국내여론등을감안、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할수는있으나 규모를 삭감하기위한흥정이나 內資비율、사업타당성등 개별사업에대한 종래방식의 간여、차관자금의 용도나 구매지역제한등 제약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힌것으로알려졌다。

이에대해고오모또장관은앞으로 협의해나가자고 말하고 일본경제도 최근 高油價、地價高騰、국제高金利、소득세율누진구조와 가처분소득감소에따른 국민불편、정부의 누증되는 財政보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申부총리는 또 한국이 외국인투자확대유치방안실시와 함께 특히 電子機械 [illegible] 등 부문에서 외국의 선진기술집약형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신元本기술공여와 관련된 일본의투자를 촉구하고 최근 양국 民間업계에서 거론되는 수출 건설등 제3국공동진출에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적극적인지원을 바란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협력방안에대한 구체적인 공식협의나 제의는 11일상오경제기획원에서 열릴것으로 예정된 개별각료회담에서있을것으로보인다。

또 新羅호텔에서 李承潤재무장관과 와다나베 (渡邊美智雄) 대장상간에열린 각료회담에서는 對日한국수출상품의 관세인하문제、서울시釜山市産銀등의 엔貨표시債券발행에대한 일본정부의 규제완화문제및 일본은행들의 적극적인對韓은행借款團 참여문제등이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리에서 李장관은 『오늘날 국제정세는 우리가 예측못할 정도로 급변하고있으며 이같은 국제정세속에서양국은 東北亞의 번영과 안정을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분야서 협력해야할분야가 급속히 증대되고있기때문에 이번회의는 과거 다른회의보다 그개최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으며 와다나베 大藏相은 經協에관한 구체적인 腹案은 제시하지 않은채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잘협조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徐錫俊상공부장관은 하오2시30분부터 롯데호텔 벨브에·룸에서 다나까通産相과 단독회담을갖고 ①重化學제품의 수입확대 ②對韓기술移轉확대③품질향상을위한기술훈련지원④部品개발협력및⑤신발수입쿼터制와 견직물自律규제및 행정지도등 무역장벽완화등 5개항의 議題를 제시하면서 일본측의 성의있는 협력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다나까通産相은 重化學제품의 수입확대는 두나라의 산업구조와 관련、어려움이많다고 지적하고 歸國後 관계각료간에 충분한토의를거쳐 적극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가깝고 가까운사이 盧外務 만찬연설

盧信永외무장관은 10일하오7시30분부터 외무장관공관에서열린 만찬에서『韓日관계가 가깝고도 먼관계로일컬어지고있지만 본인은 평소부터 양국관계가 가깝고도가까운 관계로 되어야하고 또한그렇게 될수있다는 신념을 갖고있다』면서『韓日양국은 지리적으로 이웃일수밖에 없는隣邦일뿐만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동일한가치를 추구하는이념적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지난번 외상회담을 통하여 韓日양국이 함께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상호인식을 같이하고 이를토대로 양국관계를 새로운차원에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共感했던 사실을 마음든든하게 생각하고있다』고 말한후『양국이 이러한 인식하에서 앞으로 성심성의껏 노력해나간다면 기필코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西歐제국에서 보는바와 같이 마음으로도 가까운 사이좋은 이웃이 될수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韓日각료회담 오늘의 日程

▲상오9시~10시=個別각료회의▲상오11시30분~하오1시30분=대통령예방및 午餐▲하오2시~2시10분=제2차전체회의(공동성명채택,비공개)▲하오2시10분~20분=코피브레이크 ▲하오2시20분~30분=閉會式(공개)▲하오5시=日側대표단 특별기편 金浦출발

1次會談에 滿足 소노다外相

韓日각료회의의 日側수석대표인 소노다外相은 10일낮 全體會議를 마친후 이번회담의 성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대해『만족한회의였다』고 말했다。

한편고오모또(河本敏夫)경제기획청장관은 같은 질문에대해『전체회의에서 보다는各部處別 개별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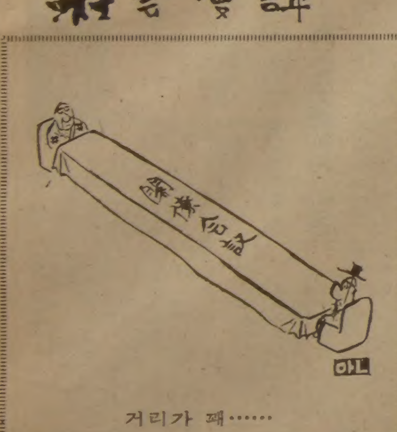
模範囚등 6백97명 秋夕 석방

법무부는 10일 추석을맞아 전국교도소및 구치소에 수용중인 모범수용자 5백15명과 모범소년원생 1백82명등 모두 6백97명을 특별가석방시키거나 가퇴원 시켰다。

李鐘元법무부장관은 이날『이번 특별가석방은 수해지구에 거주하는 수용자를 우선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illegible]

社会漫評



거리가 꽤……

地平線

뉴욕의 지하철은 4백㎞가까운 연장을 자랑한다。2백20㎞가 넘는 지하부분 營業路線의 연장도 세계제1이다。이 지하철이 세계에서 가장더럽기로 이름이 나있다。차량 옆구리는 낙서로 빈틈이 없다。선로에는 可燃性 쓰레기가 수북하여, 정거때 차바퀴의 불꽃으로 화재가 이는등 사고가 잦기도 세계제1。▼그래도 지하철 낙서는 뉴욕 명물중의 하나로 친다。스프레이·페인트로 내갈긴 『象形文字』 들이 다양하고,어떤것은 정성과 기교를 들여 제법 예술적(?)이다。그래서 낙서의 예술성을 연구한다는 예술학도도 있고, 거기에서 무슨『深層』을 본다는 사회학자도 있다。그러나 이 명물이 뉴욕 지하철의 가난을 상징한다는사실은 말하는이가 드물다。▼어떤 추산을 보면 지하철 낙서를 몽땅지우자면2백만달러(약13억원)가 든다。뉴욕 지하철은 이돈을 감당할 힘이없다。어쩌어찌하여 돈을 장만한다해도,그뒤 새 낙서를 막을 인건비 부담이 막연하다。더 딱한것은 1억7천만달러에 이르는 영업부채。앞으로 10년동안의 보수비 1백40억달러를 어떻게 하느냐다。묵은 신호기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1백여명이 부상했다。1년사이 요금은 50센트에서 75센트로 올랐다。▼안된 얘기지만,서울의 지하철 공사장을 지날때마다 뉴욕지하철이 생각난다。이랬다,저랬다의 短見과 시행착오를 목격할때 더욱 그렇다。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2~3호선의 건설비는 당초 1조1천억원이라던 것이 지금은3조3천억원이다。그돈을 대느라,민간자본을 유치한다더니,그것도 실패했다。당초 한회사에 떠맡긴다던 구상이, 23개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나, 힘이 닿지를 못한것이다。▼이를 수습하느라, 이달 들어 서울地下鐵公社가 발족했다。公社化를 반대한 여론의 방향과 일치한다。그러나 이번에는 22% 實勢金利로 公債 1천억원어치를 任意消化하여 자금을 마련한다고 한다。외국에 나가 1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할 것도 구상중이다。이같은 자금계획의 실현이 가능하다치고, 그만한 부채와 이자부담을안은 지하철의 경영은 어떻게될까。요금과 보수면에서『그지하철』은 탈만 할까。올림픽을 유치한다는 서울의 지하철―『特別市』만의입과방상으로는너무벅찬사업이다。

한국일보
그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8
은 : 온스당 US 8.97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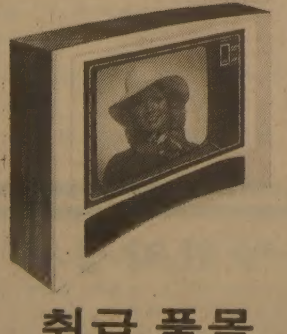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 생명교육보험
* RRSP
(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흥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ZENITH 12" BLACK & WHITE TV/MONITOR MODEL M129P
DOORBELL INTERCOM
CLOSED CIRCUIT TV CAMERA AND MOUNT
It's your regular TV until the doorbell rings . . . then it shows you who's at the door.
Use it to watch any room or any area, inside or out.
문밖의 손님을 감시 또는 대화할때
어린애를 감시하고 돌볼 때
실외에서 노는 어린이를 감시할때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 성 사 668 BLOOR ST. W. ☎ : 533-4125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 시 성
(B)497-0600
(R)298-8558
D.E.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經協없는 「綜合安保」없다"

——美·日頂上會談등서 日이 먼저擧論

10일 서울에서 열린 韓·日각료회의의 제1차회의는 소련의 군사력증강과 북괴의 남침위협에 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한반도인식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안보와 관련된 對韓經協에 대해서는 현격한 의견의 차이를 드러냈다.

한국측은 한국의 평화와 안전이 일본을 포함한 北亞의 평화·안전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차원높은 對韓經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일본은 평화헌법을 들어 계속 안보와 관련된 對韓經協을 거부했다.

소노다일본외상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번 東京에서 열린 외상회담때 盧信永외무장관이 제시한 5년동안 60억달러의 對韓공공차관 요청은 經協의 성격과규모에 있어 불가능한것 이라고 대답했다.

소노다외상은 경제협력문제에있어 ①일본이 평화국가이기 때문에 안보경제협력을 할수없으며 民生安定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가능하고 ②공공차관의 규모에있어서도 ODA(정부개발차관)의 규모를 늘린다 하더라도 중진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제한돼있으며 ③對韓經協은 점차민간베이스로 추진되고 있고④공공차관은 연차적으로 심의해야 하기때문에 한꺼번에 총액을 결정할수없다고 주장했다.

소노다외상의 이와같은 발언은 말하자면 한국측이 요청한 60억달러의 安保經協에 노라는 대답을 내놓은 셈이다. 일본측은 말로는 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돈을 내놓을 安保경제협력문제는 평화헌법을 들어가며 꽁무니를 빼는것이다. 사실 안보經協은 일본 스스로가 제기한 것이다. 지난5월 美·日정상회담과 7월 오타와에서열린 서방경제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상 국방력을 증가할수 없기때문에 국제적역할분담을 위해 경제협력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스즈끼수상은 레이건 美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정부개발원조의 확충에 노력하며 세계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역에 원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소련의 군사력증강과 南進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증강을 요청했으며 일본은 이에대해 도피구로서 종합안전보장이론에 따라 경제협력을 내세웠다.

일본은 그뿐만아니라 오타와의 공동선언에서 서방진영의 일원으로 서방세계의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은 불가피한 관계임을 강조, 자유진영의 결속을위한 경제협력을 천명했다.

그러나 美·日공동성명과 오타와의 경제협력을 천명한 일본은 그 첫 적용대상국인 한국의 경제협력요청을 이핑계 저핑계대며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韓半島緊張인정·安保거부는 모순

일본은 평화헌법을 들며 이면서 安保經協은 한수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 태국과 파키스탄에 공여하고 있는 공공차관도 안보적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야기된 분쟁지역인 태국과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협력은 사실상「종합안보」의 經協인것이다.

아마코스트美국무성(아시아 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일본에서 열린 시모다(下田)회의에서 한국은 서방국가의 전략적요충으로 한국의 안보는 중요하며 일본은 비국과의 국제적 역할분담이라는 뜻에서 對韓경제협력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아니라 다나까前수상도『50~60억달러의對韓경제협력을 가지고 야단을 떠는 것은 이해할수 없으며 혼자단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국제사회에서통하지 않는다』고 스즈끼내각의 對韓자세를비난했다.

이같이 한국측이 주장하는 안보와 관련된 경제협력 요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여론이 뒷받침하고있고 일본국내에서도 서서히 지지도를 높여가고있다.

두번째로 소노다외상은 5년동안의 60억달러차관이 너무 많은 액수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국의 對日무역적자의 2년분에 불과하다는것을 생각할때 많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더우기 1백6억달러의 ODA를 5년후에는 2배 16억달러로 배가시키려고 하기때문에 일본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연간 12억달러의 對韓공공차관은 쉽게 공여할수 있다고 본다.

盧信永외무장관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밝혔듯이 東北亞지역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韓·美·日3국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국력에 알맞는 평화유지를 위한 기여에 협력해야 할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양국간협력을 증진시키는것은 양국의 발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것이다.

한국사정 日本사정등 여러가지 曲折로 3년동안 不發에 그쳤던 韓·日정기각료회담이 제5공화국의 出帆후 처음으로 10일 서울에서 그幕을올렸다. 安保와 經協에대해 뚜렷한 韓·日간의 견해차이를 접근시켜보려는 노력이 테이블에 앉은 각료들의 긴장과 진지한 얼굴표정에서 엿보인다. 그러나 불꽃튀는 激論이 오

貿易黑字속 60억弗발뺌

韓·美의 막대한 國防費에만 依存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東北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실로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 왔다.

미국은 6·25동란때 13만7천명의 인명피해와 2백억달러의 戰費를 투입、공산침략을 막았고 1백31억달러의 對韓經協을 제공해 왔다.

한국은 GNP의 6%와 총예산의 35%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면서 자유세계의 보루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위해 과중한 부담을 해왔다.

물론 自國의 국방은 自國이 책임지고 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없으나 현대의 발달된 무기체계에 따라 전략적인 개념으로볼때 한국과 일본의 방위는 공동운명체의 관계에 놓여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戰禍는 일본에이전될 것이고 소련의 일본침공은자연한국에로의비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것이다.

소노다외상은 한국이 요구하는 60억달러의 공공차관이 규모에 있어서도 많은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65년 국교정상화이후 81년까지의 對日무역적자가 2백5억달러에 이르고 한국무역적자의 70%가 일본에의해 파생되고있다는 점을 생각할때 60억달러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또한 한국은 東北亞의 안전유지를 위해 한국의 방위력의 향후 5년동안에 북괴의 군사력에 맞먹는 정도로 끌어올리기위해 공공차관의 투입에의한 경제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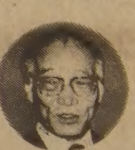
일본은 3년만에 열리는 韓·日 각료회의에서 한반도에대한 인식에는 한국과 소, 북괴의 대결자세를 고무하는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안보와 관련된 經協은 할수없다고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있는데 새로운 차원에서의 한·일국교 정상화를 원하지않고 있는가 의심스럽다.

일본은 한·일각료회담이 한·일외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고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한·일 우호협력을 적극화 할수있는 안보경협에 임해야 할것이다.

【宋孝彬 특파원】

3黨代表의 意見

民正·民韓·국민등 3黨領袖들은 지난 7일 회담에서 對日외교정책에있어 超黨的인 強硬자세를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韓·日定期각료회담에 즈음하여 日本의반성과 성의있는 對韓자세를 촉구하는의견을 들어본다. 【政治部】



李載瀅 民正黨대표위원

한국만 아닌 全世界위해 60억弗 安保經協은 당연

日本은 1945년8월 히로시마(廣島) 나가사끼(長崎)에 投下된 원자폭탄의 慘禍를 想起하기 위해서 세계평화대회라는 名目으로 매년 성대한 기념식을 올리면서 36년간 韓半島에대한 植民地통치의 아픔을 3억달러의 賠償만으로 다씻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徵用과 徵兵의 명목으로 강제로끌려간 在日한국동포들은 先進國의 하나로 自他가 인정하는 日本정부로부터 거의 不法入國한 외국인과같이 심한 정치적규제와 경제적 차별대우를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美·日頂上회담에서 아시아의 安保에 응분의 기여를 하겠다고、內가7개국 頂上회담에서 자유진영 국가간의 경제적 협력은 安保와의 관련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함께 聲名해놓고、對韓安保와 經協을 관련지을수 없다고 할수 있단 말인가.

한국의 국가발전만은 허용치 않겠다는、지난날 식민지시대에 젖던 日本의 黑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자기모순과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있는것이다.

한국의 重化學공업발전을 도와주면 끝내는 한국의 抗日세력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이번 經協도 그런점에서 응할수 없다고한 소노다外相의 妄言은 그 底意를 드러낸것이 아닌가.

우리가 요구한 60억달러의 安保經協은 지난날의 교류를 통해 日本이 지나치게 축적한 이익의 일부에 대한 배상이트(부분반환)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日本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낸 國土分斷의 결과에서 힘겹게 부담하게된 방위비용의 보상에서라기보다 東北亞를 비롯한 새로운 세계정세에서 경제적、안보적으로 공동운명체로서의 팀워크를 조성하는데 일본이 자크를 揮해야할 進路이며 마땅히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分擔해야할 책임인 것이다.

柳致松 民韓黨총재

安保와 經濟는 분리못해 共産팽창 共同 대처해야

韓國과 日本간의 安保및經濟는 不可分의 관계에 있다는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정신은 오타와 頂上會談이나 美·日頂上회담에서 日本정부 스스로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노다(園田)外相 자신이 우리 해묵은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失言을 한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한 말이 혹 국내정치에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한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그러한 視角에서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는 日本측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일방적이었음을 立證케 한것이 아닐수없다.

엄청난 貿易逆調와 安易한 공짜安保의식으로서는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를 막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분담하기 어려울 것임은 두말한 것이 없다.

安保와 經濟문제를 분명하게 때어 생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것은 論議의 전개방법에 따라 다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간에 분명한 자유진영으로서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데는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며 日本의 役割分擔은 사실은 우리를 돕는데 그치지 않고 日本의 安全、나아가서 集團安保에 있어서 義務로 느껴야 할 것이다.

韓·日관계에 있어서 모든문제가 一擧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나 이번 기회에 韓·日관계가 좀더 대등한 입장에서、그리고 공통의 視角에서 東北亞의 안정을 확보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70年代의 위기가 한국만의 위기였다면 80年代의 위기는 새로운 소련세력의 팽창이라는 요인때문에 日本으로서도 과거와는 다른 정책결정을 해야할 단계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다같이 留意해야할 것이다.

우리 民主韓國黨은 日本측이 大局的인 안목에서 韓·日관계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며 우리 政府도 아무런 인상을 주는 對日屈辱外交를 止揚할 것을 촉구한다.

金鍾哲 국민당총재

눈앞의 與件만 내세우면 日에도 끝내 이롭지못해

韓·日양국은 安保的차원을 비롯해서 경제협력·善隣外交·역사적배경、그리고 국민감정적차원에서 多角的으로 그관계가 합리적인 定立을 모색해야할 싯점에와 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그렇거니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역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협력해야한다는 자세를 끈질기게 지녀야 항상 원만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회담의 최대이슈 「安保經協論」은 새로운 韓·日관계정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단지 경제적측면에서만 본다면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에 있어 그 배경이나 상황이 각기 다른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한다. 그러기에 당사국이 서로 자기의 위치만을 고수한다면 상호정신은 무시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힘의 균형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을 감안한다면 韓·日양국간의 새로운 政治·經濟·軍事的협력은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히 강조돼야 할것은 나라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차원보다는 韓半島의 안정이 日本은 물론 東北亞의 안정、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安保문제의 구축이라는 싯점에서 核心이 다뤄져야 한다.

이번會談은 그내용이 너무 細分化되는 경향에 흐를것이 아니라 巨視的인 안목으로 보다 높은 차원에서 문제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것이다. 頂上會談을 고려할때 이번 각료회담은 보다 알맹이있고 착실한 結實을 가져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日本측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인정한다면 對韓협력요청에 대해 응당 긍정적 자세로 임해야 할것이다.

目前의 국내여건만을 내세워 더 큰 原則的인 문제를 등한시한다는것은 결코일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것이 못된다. 日本은 만일 이러한 원칙을 외면함으로써 善隣外交나 양국민의 감정에 한점의 흠을 남긴다면 그것또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議會의 자유·비밀選擧 촉구

波勞組대회閉幕 共産黨국가指導權은 인정

【바르샤바10日來(聯合=特約)】폴란드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스크는 제1차 자유노조 전국대회에 대해 소련과폴란드의 공산당정권이 표명한 분노에 현다른반응을보이지 않은채 10일 5일간에걸친 전국대회를 끝냈다.

자유노조 대표들은 자유토론을 끝내면서 그들에대한국내외공산정권의 비난에관해 전혀우려의빛을 띠지않았다.

한편 오는26일개최될 제2차전국대회에서는 1천만 폴란드인을대표하는 대표단들이모여 경제·사회계획 문제를 토의하고 그들의지도자를 선출하는등 보다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것으로보인다.

이에앞서 自由노조는 9일 폴란드의회의 自由·秘密선거를 촉구하는 바르샤바지부제안을 투표에 회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폴란드공산당국에 또다시 도전했다.

이와함께 폴란드공산당기관지 트리뷰나·루두는 솔리다르노스크 전국대회가 8일채택한 東歐圈자유노조결성 환영결의안을 『우방국의 사회·정치체제에 대한 간섭기도』라고 비난하며 폴란드정부와 자유노조가 정면대립의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유노조전국대회는 9일상오 자유노조헌장부칙에 명시된 폴란드공산당의 國家指導權인정조문을 삭제하자는 그다니스크지부대표의 제안을 토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벨기에、北傀와不修交

對韓경제협력을 增進

南총리·아이스켄스首相회담

【브뤼셀=河長春특파원】南悳祐국무총리와 마크·아이스켄스 벨기에首相은 9일낮12시(현지시간·이하같음)부터 1시간동안 首相관저에서 회담을열고 양국간의 경제협력및 통상증대 국제정세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광범하게 토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아이스켄스首相은 南총리로부터 한국정부의 대화를통한 평화추구노력과 北傀의 호전적인 도발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벨기에는 앞으로 北傀와는 여하한 관계도 수립하지 않을 것이며 北傀의 민간무역사무소 설치도 허용하지않을 방침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黃善必총리공보비서관이 발표했다.

南총리는 아이스켄스 수상의 北傀에관한 명백한 입장표명에 謝意를 표하고 앞으로도 유엔을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대해 아이스켄스 수상은 한국정부의 대화를통한 평화추구와 통일노력을 적극지지하며 유럽頂上會談과 外相會談時에도 우리의 입장이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南총리는 경제협력문제에관해 우리나라가 벨기에의 고도화된 기술을도입하고 中東에 진출한 우리건설업계의 장비와 자재를 벨기에가 공급하는데 협조해줄것과 한국의 섬유및 신발류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 쿼터를 늘려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아이스켄스수상은 9일하오(현지시간) 南悳祐국무총리에게 벨기에최고훈장인 레오폴드대훈장을수여했다.

佛、주요産業·銀行등 國有化 단행

【파리9日AP·特約=聯合】미테랑 대통령의 프랑스사회당정부는 9일 閣議를 열고 집권공약의 하나로 제시했던 주요산업 금융의 국유화를 단행키위해 9개주요산업체 20개은행및 16개금융회사를 국유화하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프랑스정부는 오는23일 다시 각의를 열어 이를 법안을 최종의결한다음 10월에 개회되는국회에 제출할방침이다.

피에트·브레고브와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테랑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각의에서 국유화의 범위、국유화에 따른 기존주식소유주들에 대한 보상방법、국유화되는 회사들의 새기구등이 구체적으로논의됐다고 밝히고 전자제품회사 톰슨·제너럴·엘렉트리크、유리및 화학제품제조회사 생·고뱅、전자제품과 무기제조회사 톰슨·브란트등 5개 대기업이 당장 전면 국유화될것이라고 밝혔다.

브레고브와대변인은 국유화될 나머지4개기업체는 우선51%만을 국유화하고 향후 5년이내에 100%국유화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말했다.

美·이 軍事協定합의

對사우디警報機판매도집중 논의

레이건—베긴 會談

【워싱턴9日AP·AFP=聯合】레이건 美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수상은 9일 백악관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에 관한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체결해야한다는데 합의했다.

베긴수상은 이날 상오 레이건 대통령과 2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진후 기자들에게 회담내용에 관해 브리핑하면서 이『전략적협력』에 관한 협정이 구체적인 방위협정들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워싱턴10日來=聯合】레이건 美대통령과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은 10일 2차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판매문제등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지도자들은 9일의 1차회담에서 이문제에대해 견해차를 보였으나 회담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것으로 전해졌다.

軍經원조 30억달러 이스라엘、美에요청

【텔아비브10日AP=聯合】이스라엘은 9일 레이건美행정부에 대해 오는83회계연도중 30억달러의 軍經원조를 제공해주도록 공식요청했다고 이스라엘 재무성이 발표했다.

재무성대변인은 요람·아리도르재무상이 이날 駐이스라엘美대사관에 이같은 원조요청을 공식전달했다고 밝히고 원조요청내용이 20억달러의 軍援및 10억달러의 민간원조 형태로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후세인王 暗殺모면

스페인서 저격企圖犯 5명체포

【베이루트9日來=聯合】후세인요르단국왕은 지난5일 스페인에서 일단의 무장괴한들에게 저격을받았으나 암살을모면했으며 암살기도범 5명이 스페인당국에 체포됐다고 베이루트의 좌익일간 아스·사피르紙가 9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요르단혁명전위대」라고부르는 단체가 아스·사피르紙의 런던支局에 전화를 걸어 사건발생일자와 상세한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海外토픽

名畵 게르니카還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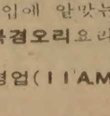
★피카소遺言따라42년만에

스페인이 낳은 입체파회화의 거장 故 파블로·피카소의 걸작중의 하나로 스페인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기전까지 결코 이나라에 반환되어져서는 안된다는 작자의 유언이 딸린 세기의 명화 『게르니카』가 지난42년간 뉴욕현대미술관생활을 끝내고 10일 내 환국한다고 스페인EFE통신이 9일 보도했다.

EFE통신은 『게르니카』가 마침내 반환문제협의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이니고·카베로 문화상과 함께 마드리드에 돌아오게 될것이라고전하고 스페인당국이 이 걸작의 안전수송을 위해 공항을 비롯한 마드리드市일원에 경찰병력을 배치、엄중한 경계를 펴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드리드=AP】

메아리

公務員 옷차림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부른다. 양복을 단정하게 잘 차려 입으면 흔히 「영국신사」란 별명이 따라 붙는다. 영국 공무원들은 조끼를 반드시 받쳐 입는것을 불문율처럼 여긴다.

역대 수상 가운데 맥밀란수상만은 그 예외였다. 그는 옷을 잘못 입는 것으로 유명했다. 옷에 대해선 너무나 무관심하여 몇년이 지나도 새로 마춰 입는 일이 드물었다. 미국의 F·루스벨트 대통령도 그랬지만 30년 묵은 고물 재킷트를 태연하게 입고 다녔다. 공무원의 상징같은조끼도 낡아 빠진 스웨터로 대신했다. 단추는 생각이 미치면 잠그는 정도였고… 옷이 날개란는말이 그에겐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다.

60년대초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들의 복장이 한때 신생활복으로 통일된 일이 있었다. 공무원의 품위、단정、검소를 위해 옷차림을 제복화시킨것이다.

신생활복은 사라졌지만 그후 여름철엔 꼭 단색 남방셔츠를 착용하도록 하여 흰노타이셔츠가 제복 아닌 제복처럼 되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도청에선 남방셔츠차림에 머리엔 기름까지 꼭 바르라는 무더운 엄명이 떨어진 일도 있다.

요즘 거리엔 한복을 차려 입은 여인네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간편한 양장으로 개성을 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옷이란 그만큼 유행과 편의의 파도를 탄다.

셰익스피어는 「호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의복에 돈을 들여도 좋으나 야단스러운것은 삼가야한다. 옷은 인품을 알아본다」이라고 충고했다. 정부가 공무원의 옷차림에 자꾸 신경을 쓰는것은 품위때문이다. 지나치게 화려해도 곤란하고 일반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도 안되는것이 공무원의 옷차림이라고 하겠다.

유니폼아닌 제복화된 옷차림의 「규제」가 앞으로 풀릴것이라고한다. 흰색 노타이나 넥타이를 맨 正裝만이 꼭 품위를 지키는것이 아니란는 뜻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것이다.

옷은 생활과 업무에 불편함이없이 간편하게 입는것이 개성도있고 보기에 좋다. 품일된 옷차림으로 보여주는 외관의 품위보다 마음의 품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뱅컷. 카트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NIPPON VIDEO CENTRE
일본비데오센터

많은 한국 테프가 새로 들어와읍니다
주6일 OPEN
1993 DANFORTH AVE. TOR.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우드바인 서쪽 1 block)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가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두꺼비 안의섭

美國여행업자協會 83년總會
서울開催 확정

【하와이10日=安潔秀기자】 세계최대의 관광업계 시장인 美國여행업자협회(ASTA) 총회가 오는83년 9월25일부터 30일까지 6일동안 서울에서 개최키로 확정됐다。

이같은 결정은 10일하오3시30분 하와이 호놀룰루市 쉐라톤 와이키키호텔에서 河大教국제관광공사사장과 조셉·R·스톤 ASTA회장간에 ASTA총회 한국유치에 관한 정식조인식을 가짐으로써 결정됐다。

조인식이 끝난뒤 河사장은 『서울에서 ASTA총회를 개최하게된으로써 한국관광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됐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오는86년에 달성예정인 외국인관광객 2백만명 유치목적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스톤회장은 『아시아에서 ASTA 총회를개최하는 것은 한국과 아시아의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76년4월 아시아 태평양지역 여행업자협회(PATA) 총회에 이어 ASTA총회의 한국유치를위해 3년전부터 끈질긴노력을 기울여왔다。

오는12일까지 열리는 ASTA총회에는 한국을 비롯, 美國, 日本, 프랑스, 西獨, 브라질, 쿠바등 1백17개국에서 9천여명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다。

추석 달맞이에 南山타워 공개

서울남산의 서울타워 5층 회전전망대가 추석달맞이 특별행사로 12일 하오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동안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타워관리를 맡고 있는 체신관서 공제조합은 이날음료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조건으로 3천원과 4천원짜리 2종류의 1시간단위입장권을전망대입구에서발매키로했다。

참새 農作物에 이롭다
慶尙大金교수調査 害虫·잡초씨 먹어

【晋州=聯】 벼농사등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포획까지 해온 참새가 오히려 보호돼야할 익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북도지부장 金在生박사(慶尙大농대교수)의 조사결과 밝혀진것。

金교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참새의 생태및 피해조사결과 1년생은 연간 해충50% 곡물류30% 잡초씨앗 20%의 비율로 먹이를 먹고있으며 어미참새는 잡초씨앗 41% 곡물류35% 해충 24%의 비율로 먹고산다는 것。

특히 참새가 잡아먹는 해충은 벼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멸구류와 나방류, 채소농사에 타격을 입히는 잎벌레·응애와 산림에 해를 끼치는 자명나방·깍지벌레·하늘소·자나방등 수십종에 달해 구충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青銅器시대 쌀栽培유적발견
大同江삼각주서 住居흔적도

【東京9日=聯】 4천년전청동기 시대에 쌀을 재배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유적군(群)이 3년간의 발굴작업끝에 平壤교외에서 지난6월 제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교오도(共同) 통신이 8일 평양발로 보도한바에 의하면 평양북서쪽 大同江삼각주에 약 5만㎡ 넓이로 펼쳐져있는 이남경(南京)유적에서는 4천수백년전부터 2천수백년전까지에 사용됐던 마제석기 빗살무늬토기와 주거적(주거지흔적)등이 4층으로 겹친채 발굴됐다。

최상층에서는 위만조선(2천2백년전부터)보다도 훨씬이전인 古朝鮮때의 옹기관(棺)이 출토됐으며 36호주거적에서는 약 3천년전의것으로 보이는 쌀알들이 발견됐다。 이미 황해도의 신석기시대유적에서 조가 발견되어 농경사실이 확인된바 있으나 이번 발굴로 청동기시대에 쌀농사가 행해졌음이 처음으로 판명된셈。 교오도 통신은 또 평양東쪽의 산속에있는 고구려시조 동명성왕릉과 릉의 남쪽에 인접해있는 正陵寺의 조사·정비작업이 작년에 끝났다고 보도했다。

全南大 8백명징계

【光州=聯】 全南大는 10일 1학기 성적이 불량한 학생 23명을 제적한 것을 비롯, 모두 8백15명을 학사징계했다。

이같은 학사징계자수는 지난 1학기의 6백72명에 비해 1백43명이 늘어난것인데 전체학생 1만3천87명 가운데 6·2%가 징계를 받았다。

高麗大 후기卒業式

高麗大는 10일 상오10시 동교 교정에서 金相浹총장등 교직원과 학부모등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80학년도 후기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학사3백84명, 석사2백10명, 박사31명이 배출됐다。

광고문의 533·2361

땅값 13年새 49배로
水原百8 大田百2배로 最高
國稅廳 地價지수

【서울=聯】 지난 68년부터 금년까지 13년동안 전국땅값은 평균49·8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올 4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전국 7천6백5개동(리)의 땅값을 토대로 국세청이 [illegible] 제정한 81년도 地價指數에 따르면 지난 68년을 1백으로한 81년도의 전국평균地價指數는 4천9백18로 지난13년동안 49·8배가 올랐다。

이 기간중 전국12개 주요도시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水原으로 무려 107·3배가 올랐고 다음이 大田으로 102·5배가 올랐다。

반면에 가장 적게오른 도시는 春川으로 23·57배 올랐고 서울도 27·5배오르는데 그쳤다。 한편 80년4월부터 81년4월까지 1년동안 가장 땅값이 많이오른곳은 光州로 25·5%가 올랐고 다음이 全州로 24·4%상승했으며 △淸州 17·6% △서울 12·6% △春川 9·2% △釜山 6·5% △仁川 6·4% △馬山 5·2% △水原 3·9% △大邱 3·6% △大田 1·9% △淸州 0·3%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매년 제정하고있는 地價지수는 감정원에서 조사한 연도별 땅값을 기준연도에 대비하여 상승비율로 나타낸것으로 부동산을 양도할때 취득당시의 실제거래가격을 모를때나 국세청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적용되는 땅값이다。

17代가 살아온 「5百년草家」
民俗자료10號 昌寧邑 河丙洙씨집

◇17대가 의연하게 지키며 살아온 河丙洙씨의 4칸초가 고옥。문공부가 지정한 민속자료이기도하다。

17代를 이어가며 5백년을 하루같이 한 가옥만을 의연하게 지키며 살아온 고집스런 가문이 있다。

1498년 조상이 지은 초가집을 17대째 대를이어 버텨온 이색문중은 경남昌寧郡昌寧邑進亨里 河丙洙씨(62)일가。

晋陽河씨 文孝公 河演의 후손인 이들이 이집과 인연을 맺게된 것은 李朝燕山君 4년(1498년)。 戊午士禍가 터지면서 당시 조정에서 벼슬을지내던 17

조상河自淵 士禍피해 隱居
못 使用않은 特異한 건축물

대조상 河自淵이 士禍를 피하기 위해 원래 살고 있던 淸州郡文義面 우록무늬 마을을 떠나 본관인 晋州로 도피해 가던중 당시 계주 마리로 불리던 이마을의 수려한 산수에 반해 도중에서 정착하면서부터。

이때 河自淵이 지은집이 오늘날 17대후손 丙洙씨가 주거하고있는 4간 초가집이다。

그후 임진왜란과 6·25동란을 비롯, 갖가지 전란에도 용케 버티어 5백년을 지켜 내려온 이집은 위 나古家인데다 못을 사용치않는등 특이한 건축방식을 갖추고있어 지난68년11월23일 문공부로부터 민속자료10호로 지정되기도했다。

집을 지은후 94년만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의 후손들은 인근 火王山 동굴로 피신, 7년만에 다시 옛집을찾아 내려왔다。 마을의 다른집들은 거의 불타고 쓰러져 풀만이 무성했으나 이집만은 그대로 건재해 있었으며 6·25동란으로 마을전체가 인민군에 포위, 불바다가 됐을때도 유일하게 화를 면하는등 숱한 일화가 전해내려오고있다。

河씨는 『집안전통을 계승하고 이마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자세는 자식들도 변함이 없다』면서 大邱에서 금은방을 경영하고있는 장남 敬穆씨(33)도 곧 사업을모두정리, 대를 이어 이집을 지키기위해 고향으로 내려올 채비를 서두르고있다고 전했다。

이렇게되면 敬穆씨의 아들인 河씨의 손자까지 이집에 살게돼 19대째 한가옥을 지키는셈。

16세때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 郭노파(82)와 부인, 3남1녀의 자녀들을 부양해온 河丙洙씨는 그동안 자녀교육을 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하는수없이 처분하는등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왔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이집만은 지나온 내력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점은 현재의 건축기술로는 이집을 원형대로 보수할수 없다는것。

지난70년 문공부예산으로 집을 보수하면서 원래 청대(靑竹)로 엮어져있던 용마루에 못질을 하게됐고 통대로 구성돼있던 서까래 부분이 반쪽의 작은 대로 [illegible] 변모했다는게 河씨의 얘기이다。【昌原=聯】

머리에2發… 拳銃쥔채숨져

10일 상오 9시께 서울 龍山區東部二村洞 300의92 한강맨션아파트 18동 옥상에서 이 아파트 18동 503호 金松씨(52·무직)가 오른쪽 관자놀이와 턱밑 목부분등 두군데에 총탄을 맞은채 숨져있는것을 청소원 尹鳳禮씨(53·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尹씨에 의하면 이날 청소를 하기위해 옥상에 올라갔더니 金씨가 상하 하늘색트레이닝복과 운동화를 신고 오른손에는 콜트(COLT)32구경 6연발 권총을 손에 쥔채 옥상출입구 벽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숨져있더라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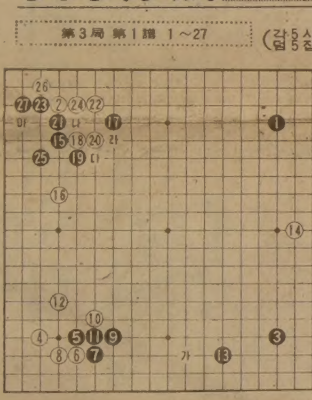
尹씨는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왼쪽관자놀이로 총탄이관통됐고 턱밑에서 코뼈부분으로 관통돼 숨졌으며 주위에는 3발의 탄피가 흩어져있었는데 한발은 탄두가 발견되지않았다。

경찰은 『金씨의 부인 文妍姬씨(51)가 지난봄 남대문에서 도매상을하는 金모씨에게 1억2천만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못해 그동안 자주 다투어왔는데 9일밤에도 부부싸움을 벌인끝에 나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일단 자살로 보는한편 권총에 남아있던 탄알3발을 수거, 출처를 수사하고있다。

주간女性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3局 第1譜 1~27 (각5시간 덤5집반)

白(7段) 徐奉洙
黑(6段) 姜哲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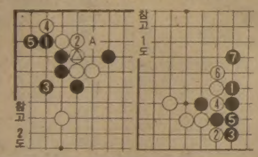
徐7단은 지난12期의 도전에 실패했으나 아직도 여전한 3관왕으로 曺薰鉉 4관왕의 諸城을 위협하는 유일한 맞수임이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항상 『어느바둑이거나 그때마다 최선을 다할뿐이다』고 말하고 있다。

당연히 생기게 마련인 한판의 승부에는 결코 「애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만 그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연구하면서 꿋꿋하고 독한 바둑의길을 꾸준히 전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피력한 것으로 믿고싶어지는 것이다。

大河의 源流처럼

오늘 이바둑은 大河의 源流처럼 잔잔한 흐름으로 출발하다가 갑자기 白10。

여기서 姜6단은 黑11로 순순히 이었지만 이때 문득 생각나는것이있다。 참고1도처럼 黑1쪽을 밀어 白2에서 7까지 되는형인데, 이형은 일본名人戰 제5期도전대국에서 趙治勳과 大竹英雄간에 두어진 때문에 기억이 새로운것이다。



黑13은, 11로 된 지로부분전형으로는 간결하지만 이런환경에서는 13도 하나의 보통형이라고 한다。

다음 좌상귀 白16이하27의 정석은 黑이약간 불만。 즉 白22를 「나」에 막는 참고2도 黑1이하의 정석에 비하여 白「A」에있는 실전譜가 白이 유리한때문。 따라서 黑23은 「다」에 밀고 白「라」黑23, 白「24」黑「마」의 형을 택할수도 있었다고。【一凡】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한국일보

나의 이력서 윤치영 ㊹
〈題字 尹致暎〉

敦岩莊시절
張德秀씨 주선으로 호텔생활 청산
李博士찾아온 방문객選別에 진땀

李承晩박사는 還國후 조선호텔에서 3週정도 머물렀다。 그때 조선호텔은 美軍政廳이 접수, 하지中將을 비롯한 士官이상 美軍의 휴식처이자 숙소였는데 李박사가 여기에 머물게 된것은 순전히 하지장군의 호의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루에 3~4백명의 방문객이 京鄕을 가릴것 없이 찾아와 李박사를 만나겠다고 하여 호텔 로비는 시장처럼 붐벼 더이상 여기에 머물수가 없었다。 특히 村老들은 화장실을 찾지못해 호텔 아무데서나 방뇨를 하거나 떠들고 해서 참괴하기 그지없는데다 美軍헌병이 출동해 이들을 정렬시키는 형편이니 민족적입장에서 부끄럽기 까지했다。 그래서 張德秀에게 이런형편을 얘기했더니 張씨가 敦岩莊을 주선해주었다。

敦岩莊은 광산업으로 치부한 張震燮(6·25때 납북) 소유로 지금의 城北區 東小門洞에 위치했는데 洋屋, 韓屋이 같이있는데다 정원도 넓었다。 주인張씨는 雲山의 부탁을 받고 선뜻 집을 빌려주며 자기는 뒤채로 옮겨갔는데 洋屋은 李박사가, 韓屋은 비서실장인 나를 비롯한 비서들이 사용했다。 敦岩莊으로 옮기면서 월 10~15만원의 李박사 생활비는 韓民黨에서 대기로 金性洙, 宋鎭禹씨와 약조했는데 韓民黨은 이후부터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줬다。

敦岩莊으로 옮기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李박사를 보필할 秘書陣구성이었다。 나는 鄭寅普등 가까운 선배, 친구들의 도움으로 곧 人選에 착수, 유능한 인재들을 李박사 주변에 모이게했다。 이때 나와같이 애를 써준 사람은 張基永, 柳子厚(공보담당), 黃圭冕(英文비서), 尹錫五(國漢文비서), 任永信등 10여명이었다。 안살림은 나의 아내(異恩惠)가 전적으로 맡았다。 이미 美洲시절부터 그의 생활습관을 잘 알고있는 妻는 성심성의껏 李박사를 뒷바라지했다。 敦岩莊은 하지장군의 배려로 민간인 경비대가 24시간 지키고 있었는데 學兵출신의 李致業(예비역육군少將)이 隊長으로 12명의 부하를 지휘했다。 안살림과 함께 외부일도 맡을 사람이 필요해졌다。 그것은 하루에도 수백명의 방문객들이 밀려 오기때문이었다。 나는 李起鵬을 생각했다。 그와 나는 뉴욕시절부터 知己였고 사람이 얌전한데다 말이없고 침착했기 때문에 안살림을 위한 지배인으로서는 최적격이었다。

당시 그는 嘉會洞에서 嘉會상회란 식료품상회를 하고 있었고 부인 朴마리아는 梨大에 나가고있었다。 나는 생각이 들자 마자 李起鵬을 찾아가 그뜻을 밝혔고 그는 곧 敦岩莊으로 옮겨왔다。 敦岩莊에는 정치인 외에도 많은 애국청년과 학생들이 찾아와 自請해서 일을 돕곤했는데 생각나는 사람으로서는 李哲承(前新民黨대표) 朴容萬(前국회의원) 金永周 金斗漢 韓哲民등이다。 비서실 일은 실장인 내가 총괄했지만 밀려드는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모자라 모두들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李박사와 조국을 위해 身命을 바친다는 一念으로 모두들 열심이었다。

敦岩莊시절의 비서진이 가장 힘겨웠던 일은 來訪客들의 選別이었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찾아온 이들때문에 敦岩莊은 항상 난장판이었으며 특히 비서실장인 나는 면담알선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있었 [illegible]

◆1945년 겨울 敦岩莊시절 李承晩박사를 중심으로 현관에서 비서실장인 筆者(左)와 妻및 경비대원과같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illegible] 李박사의 국내활동은 敦岩莊으로 옮긴후 본격화 되었는데 오랜 나그네생활 탓인지 우리고유의 음식을 무척 즐겼다。

天主敎순교자 遺品 2백75점 전시

[illegible]

流星의 賦 〈180〉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⑧0

고향 안의 집은 계남에게 있어선 바늘 방석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땐 그래도 이곳이 내집이란 의식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난 연후론 어느 한군데 마음을 놓고 앉아 있을 곳이란 없었다。

아직도 노비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천역(賤役)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정상을 볼 때, 새삼스럽게 안보는 것만 못하다는 슬픔이 치밀었다。 어머니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아들을 보고 한 소리가

『뭣 하려고 돌아왔느냐。 넌 훨훨 날고 있을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었을 때 계남은 가까스로 통곡을 참았다。

청주한씨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뒤 고개를 든 계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도 모르고 떠돌아 다니는 네 놈이 어디 사람이냐』

면서 새로 맞아들인 며느리, 즉 진(震)의 아내가 보고있는 가운데서 호된 욕을 퍼부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사를 지내려도 계남은 축담밑으로 내려가 흙바닥에서 절을 해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그래도 아버지 자수(自修)는 반기는 얼굴로 계남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더니 물었다。

『너 성민(聖民)일가를 만나 보았느냐』

『만나지 않았읍니다』

『사람을 시켜 성민일가가 널 찾고 있다는 얘길 전했을 터인데 왜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 사정이 있었읍니다』

율곡팔형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무슨 누를 끼칠까봐 홍성민, 정철, 성혼등 율곡생전에 친교가 있었던

어른들은 만나지 않기로하고 있었던 터였다。 자수는 그문제를 두고깊이 추궁하는일없이

『며칠쉬거든 다시서울로 올라가라。 가서 성민 일가를 찾아봐라。 그곳에 혹시 네가 살길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하고 담담히 말했다。

그말을받아 계남이 아뢨다。

『이번 서울에갈땐 어머니를 모시고갔으면 합니다』

『네 어머니를 네가 돌봐주겠다는 말인가?』

『예』

자수는 한참을 생각하고 있더니

『그건 안된다』

고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네 어미가 고생스러운것을 보지못하겠다는 네마음은 안다。그러나 여자란 남편곁에 있어야한다。누가뭐라고해도 네 어미는 네 어미이기에 앞서 내 아내다』

그 말에 무량한 감회가 있다는 것을 계남은 알았다。

『그러나』

하고 자수가 말을 보탰다。

『네 어머니가 널 따라 가겠다고 하면 나는 말리지 않겠다』

그날 밤 계남이 어머니에게 졸랐다。 같이 서울에 가자고。 서울에 가기만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편히 모시겠다고。 그런데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네 옆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네 아버지 가까이에서 고생스럽게 사는걸 택하겠다。 이것이 여자의 마음이란걸 알아야 한다。 너나 빨리 떠나라。 넌 이집을 떠나면 장부(丈夫)일 수 있지만 이집에 있으면 노복(奴僕)일 수 밖에 없다』

구독신청은 533-2361

海記飯店
HOI KEE REST

●CLAM ●SNAIL
●LOBSTER ●CRAB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이 광고를 갖고 오시는 분에게는
10% 감해 드립니다.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목 사 초 빙

자 격 : 1)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소명감에 불타는 목자
2) 북미사회에서나 서구에서의 수학 또는 목회의 경험 있는 목사
3) Part-time로 시작하여 Full-time로 봉사할 수 있는 목사

제출서류 : 1) 이력서 한통과 최근사진 한장
2) 2인의 추천서(추천인 직송)

제 출 처 : The Pastor Search Committee
5525 Silverson Ave., Montreal, Quebec H4V 2G6
Canada Tel : (514) 489-8753

대 우 : 자격과 경험에 따라 우대함

기 타 : 상세한 것은 개별적 문의에 응함

1981년 9월 일

몬트리얼 한인장노교회
목사 초빙 위원회

초대합니다

— 고종옥수상집 출판기념회 —

「사제작가 고종옥(마태오)님의 수상집 〈고향에 못갈지라도〉의 출판기념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 부디 자리를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1년9월18일(금) 하오7시
곳 : 프린스호텔(프린스·볼룸센터)
(900 York Mill Rd. Don Mills)
☎ : 444-2511
회비 : $15(부부), $10(개인)
※칵테일 파티·저서 드림, 고신부의 장편소설 〈사랑의 지도〉·〈예수 없는 십자가〉·〈이세상의 이방인〉도 과거 못받으신 분에게는 이날 드립니다.

발기인 :
강공선, 구상회, 김명규, 김문고,
김종욱, 김지일, 김창열, 남상현,
박영철, 박충도, 박희민, 유재신,
윤여화, 윤호영, 이상철, 이석현,
이축길, 이형인, 전충림, 전태균,
정철기, 조성준, 조성호, 조창환,
함병섭, 허영식, 홍순관… 가나다 순

韓一銀, 經理團 제압

반게임차로 先頭롯데 바짝추격

實業야구

1회말滿壘 金容哲 적시타

5승3패 단독 2位로 浮上

3—1

韓一銀行이 2위로 달리던 經理團을 제치고5승3패로 단독 2위에 나서 5승1무2패의 선두 롯데를 반 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다。韓一銀行은 10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실업야구 후기 1차리그15일째 경기서 1회말 金容哲의 2타점 결승타를 비롯한 집중3안타와 적실 1개로 3득점, 대세를 결정지어 經理團과의 2위다툼에서 3—1로 신승했다。

韓一銀行은 1회말 1번金在相의 좌중간 안타、2번鄭圖煥의 우전안타、3번 朴庸成의 타구가 야수선택으로살아 무사만루를 만들고 4번 金容哲의 중전 적시타로 2점、經理團 포수의 3루견제악송구로 1점을 추가했다。

經理團은 선발투수 金怡眞이 집중타를 맞고 포수趙鐘奎가 견제 악송구로 韓一에 점수를 엮어준데다 세차례의 찬스를 모두 상위 타자들의 병살타로 놓쳤다。1회초에는 메드볼·안타로 만든 1사1、3루에서 4번 禹京夏가 병살타를 때렸으며 4회초에 申彥皓、8회초에도 1번 丁謨鎬의 병살타로 득점찬스를 잃고 7회초 張孝祚의 좌월 솔로호머로 1점을 만회했다。

선두 롯데는 星武와 2위 韓一銀行은 商銀과 각각 한 게임을 남기고 있으나 롯데가 우승에 반게임 차로 육박, 전기종합우승에 이어 후기 1차우승이 유력시된다。

◇제15일 전적

경리단(4승2무3패) 000 000 100 —1
한일은행(5승3패) 300 000 00× —3

▲홈런=張孝祚(7회·경리)

◇제14일 전적

농협(3승4패) 100 000 001 —2
제일은행(4승1무4패) 101 201 02× —7

▲홈런=劉應三(1회·농협) 金宇烈(3회) 李鍾道(6회) 金鍾模(8회 2점·이상 제일)

◇2壘서아웃 韓一銀行과 經理團의 대전。經理團은 7회초 4번 禹京夏가 중전안타로 나갔으나 申彥皓가 유격수 앞 땅볼을 때려 2루에서 아웃되고있다。

實業축구

浦鐵、단독 先頭나서

韓電과비겨 4승3무승부로

浦項製鐵은 10일 효창운동장서 벌어진 실업축구후기리그 5일째경기에서 韓國電力과 0—0으로 비겼으나 4승3무를 기록、계속 선두를 고수하고있다。

浦鐵은 앞으로 5게임을남기고 있는데 忠義(3승4무)와 海軍(4승1무1패)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있다。

이날 住宅銀行은 企業銀行과 맞서 후반18분 FB 尹哲重의 롱슛으로 선제골을 뽑았으나 31분에 企銀 FW 柳東春에게 골을 허용하여 1—1로 비겼다。住宅銀은 3승1무2패、企銀은 1승1무5패가 됐다。

◇제5일전적

포 철 0—0 한 전
(4승3무) (2승2무3패)
주택은행 1(1—0 0—1)1 기업은행
3승1무2패 1승1무5패

參謀總長旗射擊

崔東實 한국新수립

스탠더드소총서 5백74점

제6회 육군참모총장기쟁탈 전국사격대회가 10일 泰陵종합사격장서 폐막、최종일 여자스탠더드소총서 崔東實(지도단)은 574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崔東實은 자신이 지난5월8일 전국라이플대회서세운 한국기록573점을 4개월만에 1점 경신했다。그리고 소구경 3자세서 尹德夏(지도단)는 1천1백50점을 기록、종전 1천1백48점을 2점경신하여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스탠더드권총서 林鍾吉(지도단)은 576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최종일 기록

▲소구경3자세=①윤덕하(지도단) 1150점(대회신·종전1148점) ②김준영(지도단) 1143 ③곽정훈(지도단) 1138

▲여자 스탠더드 소총=①최동실(지도단) 574(한국신·종전573)

▲학교대항 공기소총 여중부=①장충 1114 ②마산무학 1107(이상 대회신·종전 1105) ③유성 1099

▲동개인=①홍송기(장충) 376 ②배연심(유성) 375 ③이영옥(무학) 374

▲동 남대부=①인하대 2236 ②한국체대 2229 ③광운공대 2204

▲동개인=①조창호(광운공) 569 ②명재환(인하대) 568 ③곽방호(한국체대) 567

▲남대 공기소총=①강차중(한체대) 568

▲동남고부=①이철원(대전체고) 372

▲남자 스탠더드 권총=①박종길(지도단) 576(대회신)

◇여자 스탠더드 소총서 574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崔東實(지도단)。

라이온 시티컵 주니어 蹴球

한국、日꺾고 決勝진출

내일 泰國·바레인승자와 爭覇

金鍾珉 첫골·金鍾夫 추가

2—0

【싱가포르=聯】 한국고교선발팀은 9일밤 이곳국립경기장서 열린 제5회라이온시티컵 쟁탈 국제주니어축구대회 11일째준결승전서 日本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한국은 12일하오 泰國—바레인전 승자와 패권을 다툰다。

한국은 이날 日本을 맞아 전반20분 FW李萬根이 오른쪽을 돌파、센터링 해준볼을 FW金鍾珉이 슛으로 첫골을 뽑고 30분에는 CF金鍾夫가 추가골을 성공시켜 2—0으로 이겼다。

◇준결승전

한 국2(2—0 0—0)0일 본

브라질、星港完破 말聯도 印尼제압

메杯蹴球

【콸라룸푸르9日=聯】 브라질은 9일 속개된 메르데카배쟁탈축구대회에서 싱가포르를 3—0으로 완파했으며 말레이지아는 인도네시아를 2—0으로 물리쳤다。

브라질3(1—0 2—0)0싱가포르
말레이지아2(2—0 0—0)0인도네시아

朴鍾八 KO勝 10차방어 성공

동양태평양미들급 챔피언

朴鍾八(21)은 9일밤 장충체육관서 벌어진 타이틀매치에서 맷집좋은 도전자 마나·프렌차이(동급5위·泰國)와 혈전끝에 11회 12초만에 KO승, 19연속KO승을 기록하며 10차방어에 성공했다。

이날 경기를 관전한 호세·슐레이만 WBC회장등 각국 임원들은 한결같이 朴의 세계정상도전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朴은 이날 승리로22승(21KO) 1패1무를 기록했다。

世界남자 J排球

12일 蘇聯이나中共과 결승진출권놓고 激突

한국、決勝토너에 올라

朴炯用·李萬根활약 美제압 3—1

【콜로라도 스프링스 10日=聯】 한국주니어 남자 배구팀은 10일상오 이곳 空士체육관서 벌어진 준결승리그마지막경기에서 美國을 3—1로꺾고 2승1패를기록, 3승의 브라질에이어 A조2위로 4강이 겨루는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한국은 12일상오(한국시간) B조 1위인 소련이나 2위인 중공과 결승진출권을 가리게된다

이번대회는 2개조별 준결승리그에서 상위2개팀씩 크로스토너먼트로 패권을 가리게돼있었으나 대회 조직위원회가 중간에 이를 변경、이날 현재까지 한국이 준결승에서 어느팀과 경기를 갖게될것인지가 결정되지 않고있다。

한국은 이날 李萬根과 文湧冠의 블로킹호조로 첫세트를 15—8로 따냈으나 2세트에서는 잦은범실로 13—15로 졌다。

3세트들어 한국은 朴炯用 李萬根의 좌우강타와 속공등으로 15—4로 간단히 끝낸뒤 4세트에서는 15—8로게임을 1시간30분만에 마무리지었다。

◇준결승리그 최종일전적

▲A조

한 국 3(15—10 15—4 13—15 15—8)1 美 國

▲동순위=①브라질(3승) ②한국(2승1패) ③미국(1승2패) ④서독(3패)

▲B조순위=①소련(3승) ②중공(2승1패) ③쿠바(2승1패·이상세트득실차) ④아르헨티나(3패)

金煥珍、金龍鉉과 방어전 이뤄질까

복싱關係者들 "관례무시는 잘못" 異見표명

◇金龍鉉

◇金煥珍

WBA(세계권투협회)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金煥珍이 오는10월11일 大田서 OPBF(동양 태평양권투연맹) 동급 챔피언인 金龍鉉을 도전자로맞아 타이틀 첫방어전을 벌이려는 몸짓임을 보이자 국내권투관계자들은『소속이 같은 선수를 링에 올리지않는것은 프로복싱의 오랜불문율이다。이같은 관례를 깨면서까지 金煥珍—金龍鉉전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同國선수對戰은 가급적 피하는게 世界的인추세

같은 매니저 勝負조작 가능성·競技活氣 저해

對戰금지 明文규정은 없어

말썽의 핵심은 金煥珍·金龍鉉두선수가 한솥밥을 먹는 식구이기때문。두선수는 極東프로모션 대표이며 세계챔피언을 많이 만들어낸 全浩然씨를 매니저로하여 全씨밑에서 선수생활을하고있는데, 매니저가 같은 선수끼리의 대결은 승부조작이나 담합의가능성이있고 경기의 활기를 저해할 염려가있다는등의 이유로 가급적 피하고있는 것이 세계적인추세이며 논타이틀전서도 같은 계열의 선수끼리는 대결시키지않고있다。

이같은 문제때문에 세계타이틀매치나 동양 타이틀매치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국인 끼리의 대결도 가급적 피하고 있다。동국인끼리의 대결을 개방하면 외국선수의 도전기회가 적어지고 타이틀이 한국가에서만 장기간 왔다갔다할 가능성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당초 金煥珍측에서는 日本의 도까시끼、이나미측과 첫방어전협상을 벌여왔으나 뜻대로 일이 풀리지않아 우선 金龍鉉과 첫방어전을 벌이고 이경기의승자를 10월하순 東京에서 도까시끼와 대결시킬 움직임이다。

한편 全浩然씨는 같은계열의 선수끼리의대결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79년 6월 거행됐던 사라테—핀토르 대전도 같은 매니저(알루로·에르난데스) 밑에서 치른 대전이었던 점을 지적、金煥珍—金龍鉉전을 성사시킬 기세이다。

金煥珍—金龍鉉 대결이 성사된다면 앞으로 국내링에서는 같은 도장、같은매니저 밑의 선수끼리 대결하는 현상이 속출할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권투위원회(KBC)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金在契기자】

南北韓등 10國참가

킹스컵축구、2개組로나눠 豫選戰

【콸라룸푸르9日AP=聯】 오는 11월9일부터 24일까지 방콕에서 열리는 제14회 킹스컵 축구대회에는 南北韓등 10개팀이 참가한다고 타이축구협회의 피시트·농간파니스부회장이 9일 발표했다。

그는 참가팀이 南北韓을포함、印度 파키스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中共 호주 말레이지아및 타이등이며 2개조로 나뉘어 예선전을 벌인뒤 각조 상위 2개팀이 결승전을 벌이게된다고밝혔다。

그는 이어 이대회에는 당초12개팀이 초청되었으나 버마 스웨덴 바르셀로나(스페인)팀등이 참가불능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韓化、通運에完勝

日원정 籠球경기

日本에 원정중인 한국화장품 여자농구팀은 9일 가진 5차전서 日本通運팀을 85—70으로 완승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한국화장품은 訪日전적4승1패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화장품은 朴良桂의 어시스트와 金美愛 李珠美의 슛으로 전반을41—38로 리드한후 후반서도 중거리슛 우세를 지켜 85—70으로 낙승했다。

한국화장품 85(44—32 41—38)70 日本통운

조업도중 무단下船

遠洋선원 13명拘束

【釜山=聯】 남태평양에서조업중 작업이 고되다는 이유등으로 무단 하선한원양어선 선원13명이 경찰에구속됐다。

부산시경은 10일 高麗원양소속 원양어선 제51광명호(5백톤)선원 조용구씨(23·경북慶山郡 南山面 沙月里192)、홍양수산소속 남평5호 선원金영운씨(26·서울恩平區 水色洞136의2)등 원양선원13명을 밀항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항사 金모씨(30)등 상급선원들이 조업중 심하게 폭행을가해 더이상견딜수 없다면서 제51광명호가 중간보급을 받기위해 지난 6월19일 남태평양의「사모아」기지에입항했을때 무단하선했으며 金씨는 지난 4월18일 어로작업이 고되다는 이유로 하선, 어선으로 돌아가지않는등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13명의 선원이 무단하선했다는것。

블론디 딘·영 作

本本特約·連載漫畫

"친절하신 선생님, 지저분한 동전몇닢만 보태 주시겠어요?" "싫소"

"제발… 3일동안이나 구걸했는데 1센트도못벌었읍니다요" "싫소"

"오, 선생님…제발좀…" "싫다니까!"

"제기랄! 요즘은 이짓도 해먹기 힘들어지네!"

에버트、準決에선착

만들리코바를 完破 全美오픈테니스

【뉴욕9日AP=聯】 全美오픈테니스대회 여자단식 우승을 노리는 美國의 크리스·에버트·로이드는 9일 준준결승에서 하나·만들리코바(체코)를 6—1、6—3 으로 격파하고 준결승에선착했다。

에버트는이날 플러싱·메도우에서 속개된 경기에서 韓國의 李德姬선수를 꺾고 올라온 만들리코바 선수를 제압、이 대회에서 11년연속 준결승진출을 기록했으며 앤·스미드를 꺾은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와 결승진출을 다투게됐다。

3번시드의 트레이시·오스틴(美)도 6번시드의 실비아·하니카(西獨)를 6—4、6—3으로 누르고 바바라·포터—바바라·커켄승자와 준결승전을 갖게 됐다。

◇여자단식준준결승

에버트2(6—1 6—3)0만들리코바
(美) (체코)
오스틴2(6—4 6—3)0하니카
(美) (西獨)

하키協 회장 申基秀씨추대

臨總서

대한하키협회는 相朝燦회장이 일신상사유로 사임함에따라 9일 대한체육회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申基秀씨(44·京兩기업대표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광고 접수

(416) 533-2361

교 육 전 도 사

청 빙 공 고

본 요한 웨슬레 자유감리교회에서는 여자전도사를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뜻이 있으신분은 아래주소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격: 4년제 정규 감리교 개통의 신학대학 졸업자
교 역: 2년이상 유경험자
교 단: 전도사 증명소지자
한국어및 영어에 능한자
연 령: 30세 이상
대 우: 년 만달러
연락처: WESLEY CHAPLE

주 소: 2385 WARDEN AVE. SCARBOR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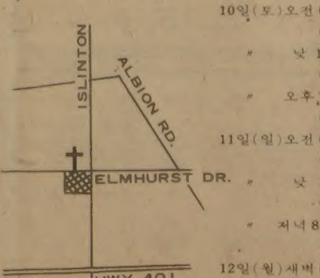
요한 웨슬레 자유 감리 교회

대부흥사경회

주 제: 내영혼을 살찌게 하자(시23:)

강 사: 김 석 규 목사
*충무로 성결교회 담임
*Expolo 74대회 부회장
*서울신학대학교수및 학장대리
*현 산호세 한인교회 담임

일시: 10월9일(금)오후7:30 (전도집회)
10일(토)오전6:30 (새벽기도)
〃 낮 10:30 (성경공부)
〃 오후7:30 (전도집회)
11일(일)오전6:30 (새벽기도)
〃 낮 1:30 (주일예배)
〃 저녁8:00 (전도집회)
12일(월)새벽6:30 (새벽기도)
〃 낮 10:30 (성경공부)
〃 저녁7:30



담임목사: 김 용 진
전 화: 745-7370

성 도 교 회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불 광 사
지도법사: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참선지도)
주 소: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223-9152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돋보기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7PM

地方大에도「卒業生유치」치열

釜山·大邱 재벌그룹서 무더기추천 의뢰

同門社員유세반 遠征

보수·昇進등 소개…公採應試 권유

【釜山·大邱=聯】기업체들의 대학졸업생 유치각전이 지방으로 확산, 부산 대구등지의 주요대학에서 열기를 더하고있다.

一部선 優秀학생 무시험선발

10일 부산시내 대학들에따르면 釜山大의 경우 이날현재 현대 대우 럭키 롯데 효성등 재벌그룹을 비롯, KAL 동아건설 대림산업등 56개기업체가, 東亞大는 29개기업체들이 각각 학생 추천을 무더기로 의뢰해왔다는것。

또한 지난4일 현대그룹이 釜山大와 東亞大에서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안내시간을 가진데 이어 7일과 8일에는 대우 삼성그룹등이 釜山大에서 각각 그룹홍보시간을 가짐으로써 졸업생유치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재벌그룹들은 같은학교출신으로 구성된 4~5명씩의 기동유세반까지 편성, 후배인 졸업예정자들을 상대로 입사후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가하면 미리준비한 슬라이드 팸플릿등을 이용, 보수와 승진관계를 설명하는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오는9월하순께 실시예정인 공개채용시험에 많이 응시해줄것을 권유하고있다。

더우기 현대와 대우그룹등은 공개채용과는 별도로 무시험전형범위를 소개하면서 학교당국에 우수학생추천을 별도로 의뢰, 이날현재 현대는 釜山大에 30명, 東亞大에 15명을 각각 추천의뢰했다。

한편 대구의 주요대학인 慶北大에도 삼성을 비롯한 현대 대우 효성등 재벌기업에서 보내온 입사추천의뢰서가 쇄도, 이날현재 2백여명이 추천을 받고 있는가하면 9월 추가졸업생중 공대생 64명이 전원 취업되는 기록을 세우기도했다。

慶北大 당국자는 이미 들어와있는 입사추천 의뢰서외에도 오는 11월말까지 3백여장의 의뢰서가 더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경상대및 법대·공대의경우 내년도 졸업생전원이 취업할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이같은 졸업생유치 경쟁양상은 대체로 지난78년 호황때와 비슷하나 기업체수와 추천의뢰 학생수면에서 지난해보다는 2배이상씩 대폭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있다。

기업들의 학생 스카우트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있는곳은 대부분 조선공학과등 공학계열을 비롯, 상경·법대·영문학과등 인기학과에 편중되고있다。

保健診療員 現地에

保社部 14日부터 僻地서 1次의료

모두 2百57명

정부의 일차 보건의료사업 실시계획에따라 오·벽지등 농어촌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등을 수행할 보건진료원1진 2백57명이 6개월간의 직무교육을 끝내고 14일부터 현지에 배치된다。

이들은 모자보건·가족계획등 간호원 또는 조산원으로서의 일반적인 보건예방활동과함께 의료법의 규정에 구하고 감기·외상치료등 1·2차적인 의료행위까지 담당하게된다。

보사부는 보건진료원 제2진 1백20명도 오는11월에 배치할 계획으로 서울大 보건대학원등 8개의과대학및 병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중이다。 보사부는 이들 보건진료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앞으로 확대실시할 2종지역의료보험의 기반조성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의 핵심역할을 담당케한다는방침아래 민자조조직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의 참여로 이를운영, 해 나가도록했다。

보사부는 보건진료원에게 상병(傷病)상태를 판별하기위한 진료, 검사행위등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대신 반드시 보건소장 감독하에 행하도록하고 가능한 의료행위의 범위도 따로 지침을 제정, 이지침의 범위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수있도록했다。

14일부터 배치되는 2백57명의 각도별 배치인원은 경기25▲강원26▲충북18▲충남23▲전북50▲전남42▲경북39▲경남34명등이다。

21만坪 空閑地로 놀려

龜尾工團 入住계약업체 당초계획 무시

【龜尾=聯】龜尾수출산업공단 제1단지 3백15만평중 입주계약업체들이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을무시, 계속 공한지로 놀리고있는 땅은 총21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龜尾市가오는15일까지 공단내 납세의무자에게 송부할 금년도 제2기분재산세 (토지) 부과내역을 최종 조정한 결과 드러났다。

市는 이에따라 공단입주업체중 공한지를 갖고있는 30개법인과 개인에게 모두 1억7천여만원의 무거운 공한지세를 물도록 조치했다。

市는 특히 이번 재산세 부과에서 2년이상 땅을 놀렸을 경우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70을, 또 5년이상 공한지로 비워두었을 때는 1천분의80이라는 무거운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에따라 2만1천평의 공한지를 갖고있는 대우전자등 부과대상업체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업체당 최고 2천9백만원에서 최하1백80만원으로돼있다。

大淸댐 水沒線측량 잘못돼

수확앞둔 일부農耕地 침수

【永同=聯】大淸댐 담수에 따른 수몰선 측량이 잘못돼 충북沃川郡내 일부지역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고 있으나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수몰선 이상으로 물이 들어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은 沃川郡安內面縣里등 5개面 10개마을 41필지 논밭 8천7백7평(밭21필지 2천3백80평·논20필지 6천3백27평)과 묘지 4기등으로 피해자는 34가구에 이르고있다。

담수대상지역에서 제외돼 해마다 벼농사를 지어온 安內面縣里306의5 鄭銀澤씨(65)는 『올해 8백49평의 논에 벼를 심어 수확을 눈앞에 두었는데 뜻밖의 침수로 하루아침에 농사를 망치게 됐다』고 울상을 지었다。

건설부는 大淸댐공사를 하면서 만수위를 80m로설정, 수몰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까지 끝냈으나 지난6일낮12시께 만수위에 1.51m가 모자라는 78.49m 수위에도 수몰선이상지역이 침수된것。

이에따라 大淸댐이 만수위인 80m까지 물이 찰경우 이지역 침수피해농경지는 더욱 늘어나게돼 이에대한 재측량및 피해보상대책이 시급한실정이다。

沃川郡은 이에대해 침수피해농경지에 대한 정확한 피해상황을 조사, 이에따른 보상대책등을 충북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부 관계자는 『처음듣는 일이며 아직 충북도에서 보고를 받지못했다。 진상을 조사해 피해보상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2百25個 廢止·統合

各市道 운영不振·類似위원회중

내무부는 10일 각시도에설치돼있는 1백41종 7백64개위원회 가운데 운영실적이부진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58종 (41%) 2백25개위원회는 폐지또는통합승수키로했다。

내무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있어 자문과 이견조정등을 맡게하기위해 법령및 조례, 규칙등으로 설치돼있는 이들 위원회에대해 그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한바있다。

내무부가 마련한 정비방안에 따르면 전기용품제조허가심사위원회를 법령개폐에 따라 폐지하고 부정축산물단속실무협의회는 업무협조만으로 가능하므로 폐지하는등 설치당시의 목적이 종료됐거나 운영실적부진으로 존치가 불필요한 43종 1백47개 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또 대학교수나 전문가로구성된 위원회, 산학협동을 목적으로 설치된위원회, 공무원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등13종 75개위원회는 시도정책자문위원회와 시도정조정위원회를 대신 활용토록했다。

예를들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고 조수보호위원회, 지방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는 도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것。 이밖에 동일기관내에 유사한목적으로 설치됐거나 설치근거가 상이해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2종3개위원회는 상호통합운영한다는 방침아래 시공평가단을 설계심사위원회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내무부는 준사법적(準司法的)기능을 가진 토지수용위원회, 시도정책자문위원회등은 앞으로도 계속 존치시키기로하고 시도의 각종위원회정비와 함께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시군구마다 24개)에 대해서도 같은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폐지대상위원회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농촌공장유치심의위원회▲미술전람회운영위원회▲특수조합설립심사위원회▲유물감정심의회▲사과가공심의위원회▲고속도로개발촉진협의회▲농가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태양열시범주택보급자문위원회▲부정축산물단속실무협의회▲세수증대대책위원회▲인허가민원사무처리조정심사위원회▲한라상조은행이사회 ▲선진마을경관심의회▲간척물심의위원회▲정부양곡안전관리협의회

新築 낙동강新岩제방 부실工事로

준공20일만에 붕괴

【尙州=聯】수해항구대책으로 축조된 경북尙州郡中東面新岩里앞 낙동강 新岩제방이 공사부실로 준공된지 불과20여일만인 지난 집중호우때 제방30m가 붕괴·유실되면서 농경지 3천여평이 매몰되고 50여ha가 침수됐다。

이 공사는 낙동강연안개발사업의 하나로 코오롱건설이 지난 80년6월 5억6천7백만원의 공사비로 1천3백50m의 낙동강변에 제방을 축조, 8월15일 준공됐으나 태풍 애그니스의 영향으로 낙동강상류에 1백여㎜의 비가 내려 강물의 수위가 제방의 3분의2 정도까지 차게되자 제방에 설치된 수문주위로 물이 스며들면서 붕괴됐다。

公有매립지 팔아 2億여원 가로채

【光州=聯】전남도경수사과는 10일 마을주민공동명의로 매립허가된 공유수면 3천5백여평을 매립한뒤 가로챈 金榮以씨(46·莞島郡薦花面製花里)와 이 마을전새마을지도자 朴貴鎭씨(44)등 2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36年만에 母女상봉

국적이 서로 달라 헤어져 살아야했던 모녀가 36년만에 극적으로 상봉,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9일 하오5시께 金海공항 대합실에서 8·15해방과 함께 한국을 떠나야했던 일본인 어머니 오오하라·시즈에(大原靜枝)여사(73·日本지바縣거주)와 한국인딸 崔무자씨(45·釜山市東萊區社稷洞125의25)가 감격적으로 재회했다。

이날 딸을 만나기 위해 JAL 957편으로 도오꾜(東京)를 떠나 金海공항에 도착한 오오하라여사는 1시간전부터 대합실에 나와있던 딸 崔여인앞으로 곧장 달려가 어릴때의 이름을 부르며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들 모녀가 극적으로 만나게 된것은 在韓日本人부인들로 구성된 부용회회장 구니다·후사꼬(國田孝子)여사(67·釜山市東萊區社稷洞거주)가 해방당시 이웃에 살았던오오하라여사의 딸 崔여인을 온천장길거리에서 우연히만나 어머니소식을 물은것이 계기가 됐다。

구니다여사는 이때 崔여인이 해방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어머니의 소식을 전혀 알수없다고 말하자 오오하라여사의 소재를 찾아주기로 결심, 3개월간의 수소문끝에 일본지바껭에 살고있는 것을 확인,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모녀의상봉을 주선, 이날 동행함으로써 결실을 보게된 것。【金海】

내고장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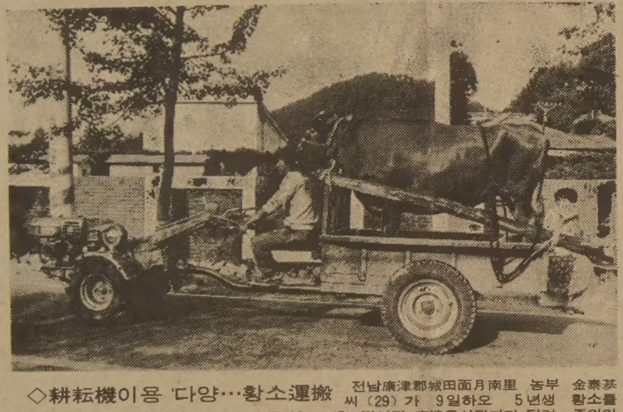
秋夕앞두고 날치기

釜山鎭경찰서는 9일 추석을 앞두고 붐비는 은행창구에서 현금을 날치기한 鄭亨模(25·西區南富民洞456)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은 9일하오3시께 釜山鎭區 釜田1洞 국민은행 釜山지점창구에서 金방구씨(54·釜山鎭區蓮池洞338)가 온라인으로 송금하기위해 창구에 밀어넣은 현금 3백50만원을 날치기해 달아나다 부근에서 추석비상경계근무를하던 경찰관 2명에게 1㎞정도 추격당한끝에 붙잡혔다。【釜山】

無許校舍에 철거령

강원道 寧越郡 上東邑소재 대한중석 상동광업소재단 동중·고교(교장 崔점숙)가 교사 2칸이 무허가건물로 적발돼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받았다。



◇耕耘機이용 '다양'…황소運搬 전남康津郡城田面月南里 농부 金泰基씨 (29) 가 9일하오 5년생 황소를 팔러가면서 경운기뒤 적재함에 소를 싣고 15㎞떨어진 康津우시장까지 달려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옛날같으면 달구지를 끌어야할 소까지도 농기구 기계화물결을타고 편안한 나들이를하게돼 소를끌고 한가롭게 걸어가는 시골풍경도 멀지않아 보기 어려워질것같다。 【光州=聯】

國內 처음 公立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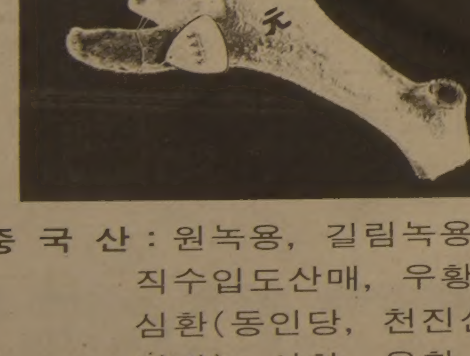
大田 大新유치원 5학급 10일開院

【大田=聯】국내 최초의공립유치원인 大新공립유치원(원장 徐建錫) 개원식이 10일 상오10시 충남大田市中區文化洞19의3 신축현장에서 尹哲炳충남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인사、학부모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구독 신청 533·2361

가 을 맞 이 대 세 일

녹용을
잡수실계절이
왔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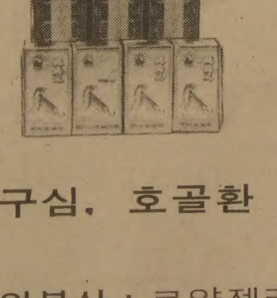
중국산 : 원녹용, 길림녹용, 직수입도산매, 우황청심환(동인당, 천진산, 남경), 사향, 우황, 편자광(간장치료), 해구신, 십전대보탕, 경명주사

캐나다산 : 웅담, 산삼(산지에서 직접수집), 해구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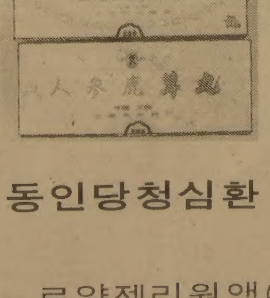
!! 염가 판매 !!

OSTER프라이판
SUPER GRILL
REG. $53.95
SALE. $2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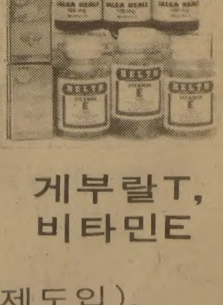
비타민및
로얄젤리!



구심, 호골환



동인당청심환



게부랄T,
비타민E

일본산 : 로얄젤리, 로얄젤리원액(미제도입), 간장보호제, 간장약, 비타민E, B콤푸렉스, 게부랄T, 고단위종합비타민, 어린이비타민

기 타 : 신경통특효약, 당뇨병약, 기응환, 구심, 용각산, 위장약, 간유구, 정력제, 해구환, 소화제, 무좀약, 호랑이기름연고등

★탈모증 특효약 입하

머리가 빠져서 고민하십니까?

뒷편에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십시요

미도파 MasterCard VISA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 다운타운 밀크스토어
워싱톤과 새인크레어
☎ : 656-3020. 960-0761

DRESS MAKER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웡

가게 헬퍼구함 : 풀타임(유경험자)및 주말에 일할분
돈밀 로드와 쉐퍼드지역(오후6시 이전 연락바람)
☎ : 491-9701

주중이나 주말에 스토아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헬퍼구함(여학생). 주말에는 풀타임 가능함
☎ : 463-6334 QUEEN E. 지역

도나스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헬퍼하실분
주중 : 오후3시~9시. 주말 : 오전8시~오후6시
영 스트릿과 칼리지 사이
598-1140

DRESS MAKER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웡

40대 전후한 여자분으로써 가게에서 뒷일
보아주실분 구함(힘든일 없음). 지하철 근처
☎ : 489-1650 3시~10시

애기와 살림해주실분 구함
☎ : 244-7303
663-1053

도나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풀타임 : 월~금(3~11PM). 파타임 : 토요일(3~11PM)
☎ : 482-4088

캐 비 넷 MAKER
FINE CUSTOM WOOD WORK.
GOOD PAY, BENEFIT
☎ : 742-7725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맥스밀크에서 일할 캐쉬어 구함
주3일
☎ : 244-5246, MRS. THOMAIDIS

경험있는 가게헬퍼 구함 :
월급 : $1140
☎ : 923-3574

가게에서 풀타임 또는 파타임으로 일하실분
남자분을 원합니다.
☎ : 248-6555

"급 구"
TURTLE MOTHER OF PEARL INC.
● 나전기사 1명
● 나전칠기사 1명
● 최소5년 경력을 가진 분에 한함
☎ : 535-2143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 535 2798 233 9454
781-9591(저녁)

매매및 양도

시간 짧은 MALL안에 있는 스모크 샵
주매상 : 3천5백달러,
PICK UP드라이크리닝 : 주매상 1500달러,
드라이브 인 햄버거 플레스 : 주매상 6000달러
장래성 있는 벡커리 도나스 가게
☎ : 741-9170, A. E. LEPAGE LTD. MRS. WOO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건물및 비즈네스 매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6500달러 이상
☎ : 535-7200 미스타 김

벡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매매 :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 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COUNTRY STYLE 도나스샵 매매
이주관계로 급매코자함. A급 프라자내
주매상 5천5백~6천.
꼭 사실분만 내방바람(오전7시~정오)
8141 Yonge St. THORNHILL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줌)
☎ : 781-7305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536-0463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여권 분실

분실공고 : 여권을 분실하였기 공고함
1619 ANWORLD COURT. MISSI. ONT.
☎ : 531-3491 이 홍 범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 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 ·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간 판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집 · 방세 · 하숙

2층집 독채 : 3 베드룸. 2 목욕실 . 차고.
10월1일 입주가능 월650달러
☎ : 465-6067 제인과 쎄인 크레어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 493-7185(R) 정 해 문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시설 판매수리 :
에어콘, 전기, 개스, 워킹쿨러, 후리저
☎ : 746-3840(B), 493-9945(R) 김 봉 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 · 이인식)

기 타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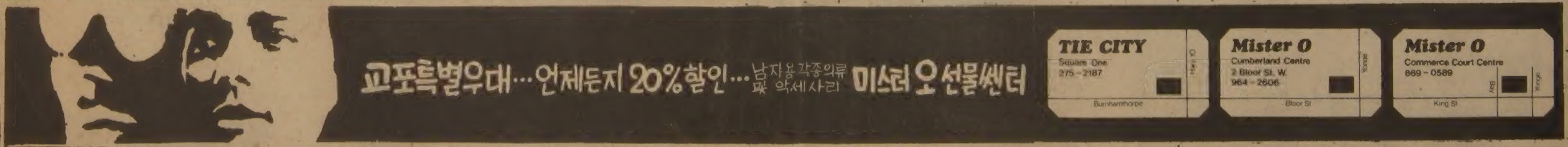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악 기 점

조율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수리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모눈종이 위의 生 〈198〉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노우트 ⑳

『그만둬』라고 그가 재빨리 유갈록의 말을 잘랐다。

『이 친군 아무나 만나면 영화하재』

『아무나라니? 미스 안이 왜 아무나야?』

유장훈이 짐짓 화를 돋운 목소리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시끄러워。난 밥이나 먹으러 가겠어』

그는 더 이상 대꾸도 하기 싫다는 듯이 전화기가 올려 놓아진 탁자에 걸터앉아 양말을 신었다。

유갈록이 다시 집요하게 고를 물고 늘어졌다。

『왜 안된다는 거지? 알다가도 모를일인데? 혹시 뭔가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러는거요? 시키든지 말든지 본인하고 얘기할 일이지』

『그래? 진작에 그렇게나 올 것이지。미스안、우리 잘 좀 해봅시다。이렇게 빌께요』

유장훈 갈록은 두 손을 모아 내게 비는 시늉을 했다。

그런 유갈록을 못마땅한듯이 곁눈질로 보며 그가 방을 나갔다。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런 비즈니스랑 어디 다른 데를 가서 해주었으면 좋겠어』

쿵쿵거리며 그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나서 유장훈이 다시 말했다。

『기록이란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글자 그대로 촬영 장면을 기록하는 거니까요。조감독한데 조금만 지도를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필이면 왜 제가 해야 하죠?』

나는 건성으로 대꾸했다。식사를 하러 가겠다고 하고 그가 어디론가 달아나 버리는게 아닌가 싶어 나는 안절부절을 못했던 것이다。그가 누군가를 시켜 짐을 옮겨 버리면 나는 또 그를 찾아내는 일에 헛된 정력을 낭비해야만 되는 것이었다。

『이거 또 말 실수했구먼。누구나가 아니라 미스 안만。그러면 됐소?』

『아뇨』

『우리 비싸게 이러지 맙시다。어디든 연출부에 들어가 기록을 맡으려면 적어도 두세 작품하는 동안은 막일을 해야되는게 영화계의 상식이요。입테면 파격적인 스카우트란 말입니다。저 친구하고 내일 모두 부산으로 떠나게 되는데 미스 안도 같이 갑시다。이건 미스 안이 내 연출부에 들어온다는걸 전제해서 드리는 특별 보너습니다。어때요?』

그가 내일 부산으로 떠난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뉴스였다。나는 귀가 번쩍 뜨인 느낌으로, 그러나 유장훈감독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두려움까지 동반한 의구심을 느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크랭크인인가를 내일 하는건가요?』

『아니、그건 이달 말일이고、그 안에 어떻게 시나리오에서 손을 좀 놓아볼까하고 기분 전환을 겸해서 떠나는 겁니다。어때요? 흥미 있어요?』

『누구누구 가시는데요?』

『한하고 나、또 두어 사람 더 갈겁니다。여자들이니까 미스 안하고 친구 삼아 안심마음이군』

『어젯밤에 보았던 〈어제 내린 비〉에서요』

유장훈 감독은 머리부터 젓고 말했다。

『신경 쓸거없어요。걔들은 아니니까。가만있자、그럼 합의를본 걸로하고、저 친구한테랑 내일아침아홉시에 서울역 대합실에서 만날 때까지 비밀에 붙입시다』

『비밀은 무슨。남자 두분 여자 두분 가시는데 제가 왜 끼여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